

조사보고서

---

# 2022년 부천시 단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2022. 09.





## < 목 차 >

1장 서론 .....	1
1절 조사 배경 .....	1
2절 조사 목적·내용 .....	2
1. 조사 목적 .....	2
2. 조사 내용 .....	3
3절 조사·방법 .....	4
2장 설문조사 결과 .....	5
1절 단시간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	5
1. 설문조사 참여자 개관 .....	5
2. 단시간 노동자 실태 .....	6
1) 근속 .....	6
2) 근로계약 .....	7
3) 근무시간 .....	8
4) 휴게 실태 .....	10
5) 임금 및 주휴수당, 퇴직금 .....	12
6) 인격적 대우 .....	20
7) 임금 지급 .....	21
8) 기타 및 사회보험 .....	22
3. 근무 만족도와 복수 일자리 여부 .....	24
2절 프랜차이즈 사업주 실태조사 .....	26
1. 조사 참여 점포 개관 .....	26
2. 가맹점 운영 실태 .....	27
1) 점포 근무 형태 및 직원 현황 .....	27
2) 월 휴일 및 영업시간 .....	29
3) 매출 현황 .....	30
4) 점포 운영의 어려움과 로열티 .....	33
5) 가맹점 분사 및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 .....	37
3장 요약 및 정책 제언 .....	41

1절 요약 .....	41
2절 정책 제언 .....	42

## <표 차례>

[표 1-1] 프랜차이즈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2020년) .....	3
[표 2-1] 조사 참여자 개관 .....	5
[표 2-2] 세부 변수별 평균 근속 .....	7
[표 2-3]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여부 .....	7
[표 2-4] 세부 변수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	8
[표 2-5] 세부 변수별 근무일 및 근무시간 평균 .....	9
[표 2-6] 세부 변수별 주당 근로시간 구분 .....	10
[표 2-7] 휴게시간 실태 (전체) .....	11
[표 2-8] 휴게시간 실태 (1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자만) .....	11
[표 2-9] 세부 변수별 휴게시간 및 임금지급 유무(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자) .....	12
[표 2-10] 세부 변수별 주간 시급액 평균 .....	13
[표 2-11] 세부 변수별 야간 시급액 평균 .....	14
[표 2-12]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	15
[표 2-13]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 및 교부 방식 .....	15
[표 2-14] 세부 변수별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및 교부 방식 .....	17
[표 2-15] 세부 변수별 주휴수당 수령 여부(주 15시간 이상자) .....	17
[표 2-16] 미지급 추정 주휴수당액 .....	18
[표 2-17] 퇴직금 수령 여부 .....	19
[표 2-18] 세부 변수별 퇴직금 수령 여부(1년이상 & 주15시간 이상) .....	19
[표 2-19] 폭언·폭력 실태 .....	20
[표 2-20] 세부 변수별 손님의 폭언·폭력 실태 .....	20
[표 2-21] 성희롱 실태 .....	21
[표 2-22] 임금 지급 실태 .....	21
[표 2-23] 세부 변수별 마감후 차액 처리 .....	22
[표 2-24] 초과, 추가노동 경험 유무 .....	22
[표 2-25] 세부 변수별 추가노동 실태 .....	23
[표 2-26] 세부 변수별 사회보험 가입 실태 .....	23
[표 2-27] 세부 변수별 일자리 만족도(5점 척도) .....	25
[표 2-28] 세부 변수별 추가 부업 여부와 일 개수 .....	26

[표 2-29] 조사 참여 점포 개관 .....	26
[표 2-30] 세부 변수별 점포 운영 형태 .....	28
[표 2-31] 세부 변수별 외부직원 수 평균 .....	28
[표 2-32] 업태별 월 휴무일 .....	29
[표 2-33] 세부 변수별 매출 증감 현황 .....	31
[표 2-34] 매출 감소 대응 .....	32
[표 2-35] 업태별 매출감소 대응(1순위) .....	32
[표 2-36] 점포 운영상 어려움 .....	33
[표 2-37] 세부 변수별 점포 운영상 어려움(1순위) .....	34
[표 2-38] 업태별 수수료 수준 인식 .....	36
[표 2-39] 가맹본부에 대한 요청 사항 .....	37
[표 2-40] 업태별 가맹본부에 대한 요청 사항(1순위) .....	38
[표 2-41] 경기도에 대한 요청사항 .....	39
[표 2-42] 업태별 경기도에 대한 요청사항 .....	39

##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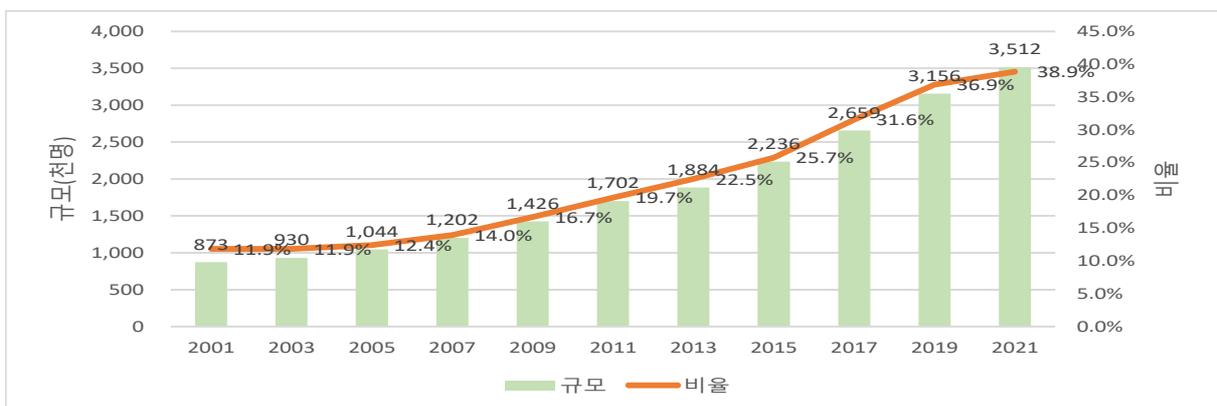
[그림 1-1] 단시간 노동자 규모 추이 .....	1
[그림 2-1] 근속 개월 분포 .....	6
[그림 2-2] 주당 근로일·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일 근로시간 .....	9
[그림 2-3] 주간 시급액 분포 .....	13
[그림 2-4] 야간시급액 분포 .....	14
[그림 2-5] 주휴수당 수령 여부 .....	17
[그림 2-6] 사회보험 가입 실태 .....	23
[그림 2-7] 일자리 만족도 .....	24
[그림 2-8] 점포 운영 형태 .....	27
[그림 2-9] 월 휴무일 수 및 1일 영업시간 .....	29
[그림 2-10] 업태별 1일 영업시간 평균 .....	30
[그림 2-11] 1년전 대비 매출 증감 현황 .....	30
[그림 2-12] 수수료율 현황 .....	35
[그림 2-13] 수수료액 현황 .....	36
[그림 2-14] 수수료 수준 인식 .....	36

# 1장 서론

## 1절 조사 배경

-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점이 한국 노동사회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어 왔지만, 한국 사회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 및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기간제·무기계약직 등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파견·용역·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되어 왔다.
- 반면에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고용형태로서,
  -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한 비정규 고용형태였다.
  - 전체 임금노동자중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1년 87만 3천명 수준이었던 단시간 노동자의 규모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351만 2천여명 수준으로 증가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38.9%는 단시간 노동자이다.

[그림 1-1] 단시간 노동자 규모 추이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비율은 전체 비정규 노동자 대비 비율치임.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단시간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단시간 노동에는 대체로 여성, 청소년 및 준고령 노동자 등 대체로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시간 노동은 ‘부업’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노동시장내 취약집단별로 직종·업종이 분리·분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특히 청소년이 단시간으로 취업하는 프랜차이즈 서비스 업종·직종들은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라는 점에서 사업주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기본권 유린 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2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 2010년대부터는 지역의 비정규 센터들이 중심으로 지역내 단시간 노동자, 특히 급증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실태 파악과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인 ‘힘내라 알바’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 2020년부터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노동권익서포터즈’라는 단시간 노동자 처우 개선 사업을 전개해 왔다.

○ 이 보고서는 경기도와 부천시·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한 ‘부천시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 중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 2절 조사 목적·내용

### 1. 조사 목적

○ 부천시 관내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파악

- 임금, 근로조건 등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의 상당 수는 청소년, 여성, 준고령 등 노동시장내 취약 계층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 프랜차이즈 점주 실태조사

- 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자영-고용주의 지위에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하에서는 종속성을 지닌 소규모 사업주이기도 하다.
-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주 실태조사를 통해 점포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더불어 가맹본사와의 거래관계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조돈문의 (2016),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국가인권위원회.

○ 실태 조사를 통해 부천시 프랜차이즈 업종내 점포 운영 및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실태상의 문제점 파악과 아울러 처우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을 도출하도록 한다.

## 2. 조사 내용

- 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조사 내용은 단시간 노동 관련한 법·제도 준수 실태 파악이다.
  -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여부,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등과 더불어 기타 부당한 처우 경험 유무 등
  - 임금 실태와 복리후생 적용 실태 : 시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 실태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 작업장내 산업안전 : 성희롱 및 폭언·폭력 실태 등.
  
- 프랜차이즈 점주를 대상으로 한 주요 조사 내용은 점포 운영 실태, 가맹점 본사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요청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 조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업태중 편의점·커피점·패스트푸드점·피자점·제과점 등을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태들이다.
  - 경기도는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종사자중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1] 프랜차이즈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2020년)

프랜차이즈 업태	전국		경기도		비율	
	사업체 수 (A)	종사자수 (B)	사업체 수 (C)	종사자수 (D)	C/A	D/B
체인화 편의점	46,364	190,149	12,280	56,042	26.5%	29.5%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1,674	4,378	471	1,173	28.1%	26.8%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072	12,873	1,068	3,494	26.2%	27.1%
안경 및 렌즈 소매업	3,260	8,566	809	2,073	24.8%	24.2%
한식 음식점업	35,349	113,788	9,462	31,278	26.8%	27.5%
외국식 음식점업	8,300	37,068	2,332	10,806	28.1%	29.2%
제과점업	7,701	33,604	1,957	8,856	25.4%	26.4%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072	55,946	3,518	14,745	25.0%	26.4%
치킨전문점	27,303	62,502	6,576	15,080	24.1%	24.1%
김밥, 기타 간이음식점 및 포장 판매점	15,812	45,411	4,076	12,134	25.8%	26.7%
생맥주 및 기타 주점업	9,937	25,387	2,252	6,333	22.7%	24.9%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21,342	77,589	5,136	18,352	24.1%	23.7%

프랜차이즈 업태	전국		경기도		비율	
	사업체 수 (A)	종사자수 (B)	사업체 수 (C)	종사자수 (D)	C/A	D/B
자동차 전문 수리업	5,494	24,758	1,426	6,993	26.0%	28.2%
두발 미용업	4,126	19,790	1,230	5,846	29.8%	29.5%
가정용 세탁업	4,720	7,013	1,422	2,171	30.1%	31.0%
기타 프랜차이즈	25,346	83,596	6,692	21,785	26.4%	26.1%
합계	234,872	802,418	60,707	217,161	25.8%	27.1%

\* 통계청, 「프랜차이즈조사」(2020년)

-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은 단시간 노동자, 특히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청소년 노동자가 집중 취업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이기도 하다.

### 3절 조사 방법

- 단시간 노동자와 점주(가족)를 대상으로 단시간 노동 실태 및 점포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 조사 방법은 부천시 관내 프랜차이즈 점포를 대상으로 부천시 노동권익서포터즈가 방문하여 1:1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2장 설문조사 결과

### 1절 단시간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참여자 개관

- 조사는 2022년 6월 ~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719명의 단시간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 전체 조사 참여자 수는 1,731명이다. 이중 점주, 또는 점주가족 종사자 12명을 제외한 ‘노동자’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21년 조사와 비교시 조사 참여자 수가 155명 증가하였다.

[표 2-1] 조사 참여자 개관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성	남성	625	36.4	업태	편의점	1,021	59.4	
	여성	1,091	63.6		커피점	367	21.3	
연령	10대	196	11.4		햄버거전문점	90	5.2	
	20~24세	924	53.9		피자점	44	2.6	
	25~29세	293	17.1		제과점	132	7.7	
	30대	142	8.3		기타	65	3.8	
	40대	65	3.8		근속	3개월이하	573	34.0
	50대이상	93	5.4			6개월이하	329	19.5
	평균	25.8세		1년이하		291	17.2	
가맹형태	가맹점	1,390	81.3	2년이하		261	15.5	
	직영점	50	2.9	2년초과		233	13.8	
	잘모름	270	15.8	평균	12.0개월			
				근로시간	15시간미만	941	54.9	
					36시간미만	515	30.0	
					36시간이상	258	15.1	

- 성별에서는 여성이 2/3에 이르고 있으며, 근속에서는 3개월 이하가 34.0%, 6개월 이하까지 합하면 53.5%이다. 평균 근속 기간은 12개월이다. 2021년 조사에서 6개월 이하 근속자 비율이 49.0%였다. 특히 3개월 이하 근속자 비율은 2021년 조사에서 22.8%였다는 점에서 2022년 조사에서는 11.2%p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대비 2022년 조사에서는 평균 근속이 0.5개월 감소하였다.
- 연령대를 보면 전체의 1/2 이상인 53.9%가 20세~24세이다. 1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사참여자의 2/3에 이르는 65.3%가 25세 미만이다. 단시간 노동이 20대 청년노동자의 주된 고용형태임이 이번 조

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조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5.8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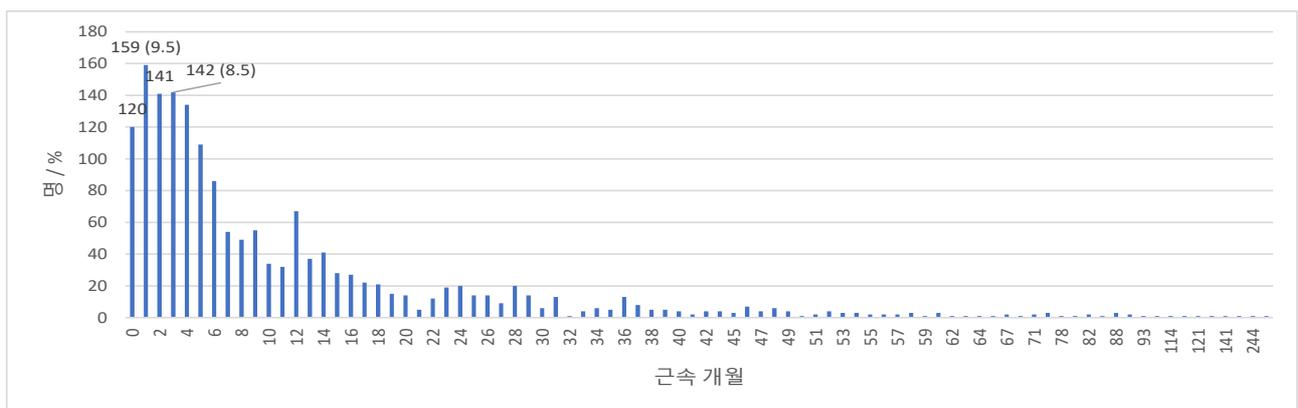
- 2021년 조사와 비교시 여성, 25세 미만자 비율이 각각 1.9%p, 2.7%p 증가하였다. 25세 미만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평균 연령 또한 2022년 조사에서는 0.2세 하락하였다.
- 가맹형태에서는 81.0%가 가맹점이고 직영점 노동자는 2.9%, 50명에 불과하다. ‘잘 모름’으로 응답한 노동자 270명중 219명(81.1%)이 편의점 노동자이다. 사실상 가맹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근로시간을 보면 54.9%, 941명이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이다. 2021년 조사에서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비율은 48.0%로서 이번 조사에서 6.9%p 증가하였다.
- 업태에서는 59.4%가 편의점이다. 커피점은 21.3%로 조사 참여자의 80.7%가 편의점과 커피점 노동자이다. 2022년 부천시 단시간 노동자 실태 분석은 사실상 편의점과 커피점에서 근무하는 20대 이하 단시간 노동자 실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단시간 노동자 실태

### 1) 근속

- 조사 참여자의 근속 개월 분포를 보면 1개월이 159명(9.5%)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3개월과 2개월 순서이다.

[그림 2-1] 근속 개월 분포



\* 괄호 안 수치는 비율치임

- 최소값은 0개월이며, 최대값은 247개월(20.5년)이다. 평균은 12.0개월이지만 중위값은 6.0개월이다.
- 세부 변수별로 근속 평균을 보면 여성에서 근속 기간이 약간 긴 편이며, 40대에서 평균 근속기간이 가장 긴 편이다.

[표 2-2] 세부 변수별 평균 근속

구분		근속(개월)	구분		근속(개월)
성	남성	11.3	업태	편의점	10.9
	여성	12.5		커피점	10.3
연령	10대	4.7		햄버거전문점	18.9
	20~24세	9.8		피자점	23.0
	25~29세	15.7		제과점	13.7
	30대	17.8		기타	19.3
	40대	27.5			
	50대이상	20.7			

- 업태에서는 피자점이 가장 길며, 편의점이 가장 짧다.

## 2)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실태를 보면 조사 참여자의 8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자중 89.1%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참여 노동자중 14.1%(전체 노동자수 대비 미작성 + 미교부 노동자 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셈이다.

[표 2-3]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인원(명)	비율(%)	근로계약서 교부	인원(명)	비율(%)
작성	1,499	87.3	교부	1,329	89.1
미작성	156	9.1	미교부	87	5.8
잘모름	62	3.6	잘모름	75	5.0
전체	1,717	100.0	전체	1,491	100.0

- ‘잘 모름’ 을 고려하면 실제 미작성·미교부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2021년 조사에서 미작성 비율은 9.0%였다.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에서 미작성·미교부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며, 연령에서는 30대와 50대 이상에서 미작성 비율이 확연히 높다.
- 25세 미만과 40대 이상에서는 미교부 비율도 높은 편이다.
- 근속에서는 3개월에서 미작성, 미교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4] 세부 변수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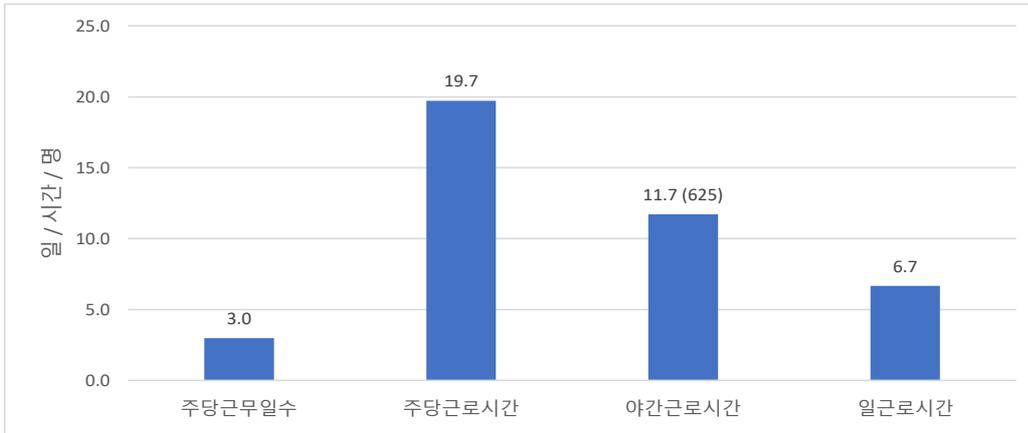
구분		근로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수령		
		작성	미작성	잘모름	교부	미교부	잘모름
성	남성	548 (87.7%)	55 (8.8%)	22 (3.5%)	488 (78.5%)	83 (13.3%)	51 (8.2%)
	여성	948 (87.1%)	101 (9.3%)	40 (3.7%)	842 (77.8%)	155 (14.3%)	85 (7.9%)
연령	10대	166 (84.7%)	19 (9.7%)	11 (5.6%)	148 (75.5%)	29 (14.8%)	19 (9.7%)
	20~24세	805 (87.3%)	79 (8.6%)	38 (4.1%)	702 (76.4%)	134 (14.6%)	83 (9.0%)
	25~29세	266 (90.8%)	20 (6.8%)	7 (2.4%)	245 (83.9%)	32 (11.0%)	15 (5.1%)
	30대	125 (88.0%)	15 (10.6%)	2 (1.4%)	120 (85.1%)	15 (10.6%)	6 (4.3%)
	40대	57 (87.7%)	6 (9.2%)	2 (3.1%)	46 (71.9%)	10 (15.6%)	8 (12.5%)
	50대이상	74 (79.6%)	17 (18.3%)	2 (2.2%)	66 (74.2%)	18 (20.2%)	5 (5.6%)
업태	편의점	866 (84.8%)	110 (10.8%)	45 (4.4%)	757 (74.7%)	163 (16.1%)	94 (9.3%)
	커피점	337 (92.1%)	22 (6.0%)	7 (1.9%)	303 (83.2%)	37 (10.2%)	24 (6.6%)
	햄버거전문점	82 (92.1%)	7 (7.9%)	0 (0.0%)	76 (86.4%)	8 (9.1%)	4 (4.5%)
	피자점	43 (97.7%)	1 (2.3%)	0 (0.0%)	40 (90.9%)	3 (6.8%)	1 (2.3%)
	제과점	110 (83.3%)	14 (10.6%)	8 (6.1%)	103 (78.0%)	21 (15.9%)	8 (6.1%)
	기타	61 (93.8%)	2 (3.1%)	2 (3.1%)	54 (83.1%)	6 (9.2%)	5 (7.7%)
가맹 형태	가맹점	1,226 (88.3%)	116 (8.4%)	46 (3.3%)	1,094 (79.2%)	180 (13.0%)	107 (7.7%)
	직영점	46 (92.0%)	3 (6.0%)	1 (2.0%)	42 (89.4%)	3 (6.4%)	2 (4.3%)
	잘모름	218 (80.7%)	37 (13.7%)	15 (5.6%)	189 (70.0%)	54 (20.0%)	27 (10.0%)
근속	3개월이하	472 (82.5%)	74 (12.9%)	26 (4.5%)	414 (72.6%)	102 (17.9%)	54 (9.5%)
	6개월이하	291 (88.7%)	27 (8.2%)	10 (3.0%)	265 (81.0%)	40 (12.2%)	22 (6.7%)
	1년이하	258 (88.7%)	24 (8.2%)	9 (3.1%)	227 (78.8%)	41 (14.2%)	20 (6.9%)
	2년이하	238 (91.2%)	14 (5.4%)	9 (3.4%)	214 (82.3%)	27 (10.4%)	19 (7.3%)
	2년초과	213 (91.4%)	14 (6.0%)	6 (2.6%)	188 (81.7%)	24 (10.4%)	18 (7.8%)

- 업태에서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미작성·미교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3) 근무시간

○ 조사 참여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보면 주 평균 3.0일을 근무하며 주 근로시간 평균은 19.7시간이다. 주당 근무시간중 야간 근무시간 평균은 11.7시간이며, 하루 근무일당 근로시간 평균은 6.7시간이다.

[그림 2-2] 주당 근로일·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일 근로시간



\* 괄호안 수치는 인원 수임.

○ 세부 변수별로 평균을 보면 남성은 근무일수, 야간 근로시간, 근무일당 근로시간이 긴 편이다.

- 연령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당 근로시간과 야간 근로시간이 긴 편이며, 근속에서는 근속 2년 초과에서 주당 근무일 및 주당 근로·야간·1일 근로시간이 긴 편이다.

[표 2-5] 세부 변수별 근무일 및 근무시간 평균

구분		주당근무일수	주당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근무일당 근로시간
성	남성	3.1	22.7	15.8	7.4
	여성	2.9	18.0	6.2	6.3
연령	10대	2.3	14.0	6.9	6.3
	20~24세	2.7	17.3	9.8	6.6
	25~29세	3.3	22.3	14.1	6.7
	30대	3.9	27.7	15.6	7.2
	40대	4.0	27.5	17.2	6.7
	50대이상	4.1	29.5	21.8	7.3
업태	편의점	2.7	19.1	13.8	7.2
	커피점	3.3	19.3	3.3	5.8
	햄버거전문점	3.9	25.5	7.5	6.4
	피자점	4.5	35.6	11.1	7.6
	제과점	2.9	17.2	2.1	5.8
	기타	3.2	18.0	2.2	5.4
가맹 형태	가맹점	3.0	20.0	11.8	6.6
	직영점	3.7	26.2	10.7	7.1
	잘모름	2.6	17.3	11.1	6.8
근속	3개월이하	2.8	18.0	11.8	6.5

구분	주당근무일수	주당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근무일당 근로시간
6개월이하	2.8	18.4	11.8	6.7
1년이하	2.9	18.7	9.6	6.6
2년이하	3.1	21.4	11.6	6.8
2년초과	3.6	25.4	14.7	7.1

- 주당 근무시간 구분을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 20대 이하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 가맹형태에서는 직영점에서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근속이 길수록 36시간 이상자 비율이 높다.

[표 2-6] 세부 변수별 주당 근로시간 구분

구분		15시간미만	36시간미만	36시간이상	구분		15시간미만	36시간미만	36시간이상
성	남성	270 (43.3%)	222 (35.6%)	132 (21.2%)	가 맹 형 태	가맹점	760 (54.9%)	405 (29.2%)	220 (15.9%)
	여성	669 (61.5%)	293 (27.0%)	125 (11.5%)		직영점	17 (34.0%)	17 (34.0%)	16 (32.0%)
연령	10대	145 (74.0%)	46 (23.5%)	5 (2.6%)	근 속	잘모름	160 (59.3%)	90 (33.3%)	20 (7.4%)
	20~24세	570 (61.7%)	280 (30.3%)	74 (8.0%)		3개월이하	360 (62.8%)	146 (25.5%)	67 (11.7%)
	25~29세	133 (45.5%)	94 (32.2%)	65 (22.3%)		6개월이하	198 (60.4%)	92 (28.0%)	38 (11.6%)
	30대	47 (33.6%)	42 (30.0%)	51 (36.4%)		1년이하	156 (53.8%)	103 (35.5%)	31 (10.7%)
	40대	22 (33.8%)	20 (30.8%)	23 (35.4%)		2년이하	123 (47.1%)	90 (34.5%)	48 (18.4%)
	50대이상	22 (24.2%)	32 (35.2%)	37 (40.7%)		2년초과	90 (38.8%)	73 (31.5%)	69 (29.7%)
업 태	편의점	579 (56.8%)	304 (29.8%)	136 (13.3%)					
	커피점	208 (57.0%)	101 (27.7%)	56 (15.3%)					
	햄버거전문점	24 (26.7%)	45 (50.0%)	21 (23.3%)					
	피자점	6 (13.6%)	14 (31.8%)	24 (54.5%)					
	제과점	87 (65.9%)	32 (24.2%)	13 (9.8%)					
	기타	37 (57.8%)	19 (29.7%)	8 (12.5%)					

#### 4)휴게 실태

○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유무와 휴게시간 사용 실태, 휴게시간 근무시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있다고 밝힌 단시간 노동자는 49.2%였다.

- 휴게시간에 쉬기 어렵다고 밝힌 노동자는 28.7%, 휴게시간에 일한 경우에 임금 지급 관련해서는 39.7%가 지급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표 2-7] 휴게시간 실태 (전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유무			실 휴게시간 사용			휴게시간에 일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있음	845	49.2	실 수 있음	1,231	71.6	지급	748	43.5
없음	766	44.6	쉬기 어려움	258	15.0	미지급	459	26.7
무응답	108	6.3	무응답	230	13.4	무응답	512	29.8

○ 근무일당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는 1,603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휴게시간 실태를 살펴보면 4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가 44.2%, 휴게시간에 쉬기 어렵다고 밝힌 노동자의 비율은 15.0%에 이르고 있다.

- 휴게시간에 근무시 임금 미지급도 41.0%에 이르고 있다.

[표 2-8] 휴게시간 실태 (1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자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유무			실 휴게시간 사용			휴게시간에 일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있음	796	49.7	실 수 있음	1,153	71.9	지급	704	43.9
없음	709	44.2	쉬기 어려움	240	15.0	미지급	431	26.9
무응답	98	6.1	무응답	210	13.1	무응답	468	29.2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 25세 미만에서 쉬기 어려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25세 미만과 50대는 휴게시간 근로시 임금 미지급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9] 세부 변수별 휴게시간 및 임금지급 유무(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자) (단위 : 명)

구분	휴게시간유무		휴게시간사용		휴게시간임금		
	있음	없음	실수있음	쉬기 어려움	지급	미지급	
성	남성	293 (52.8%)	262 (47.2%)	436 (87.0%)	65 (13.0%)	266 (66.0%)	137 (34.0%)
	여성	500 (52.8%)	447 (47.2%)	715 (80.4%)	174 (19.6%)	436 (59.8%)	293 (40.2%)
연령	10대	86 (51.5%)	81 (48.5%)	132 (84.6%)	24 (15.4%)	78 (62.9%)	46 (37.1%)
	20~24세	408 (50.0%)	408 (50.0%)	616 (81.6%)	139 (18.4%)	375 (60.3%)	247 (39.7%)
	25~29세	152 (59.6%)	103 (40.4%)	204 (85.0%)	36 (15.0%)	138 (66.3%)	70 (33.7%)
	30대	73 (58.9%)	51 (41.1%)	98 (85.2%)	17 (14.8%)	61 (65.6%)	32 (34.4%)
	40대	31 (55.4%)	25 (44.6%)	42 (84.0%)	8 (16.0%)	19 (52.8%)	17 (47.2%)

구분	휴게시간유무		휴게시간사용		휴게시간임금		
	있음	없음	실수있음	쉬기 어려움	지급	미지급	
50대이상	42 (51.9%)	39 (48.1%)	56 (78.9%)	15 (21.1%)	30 (62.5%)	18 (37.5%)	
업태	편의점	386 (42.8%)	515 (57.2%)	674 (84.0%)	128 (16.0%)	334 (53.7%)	288 (46.3%)
	커피점	214 (66.9%)	106 (33.1%)	245 (78.5%)	67 (21.5%)	194 (70.8%)	80 (29.2%)
	햄버거점	66 (86.8%)	10 (13.2%)	67 (87.0%)	10 (13.0%)	57 (82.6%)	12 (17.4%)
	피자점	33 (86.8%)	5 (13.2%)	37 (92.5%)	3 (7.5%)	28 (87.5%)	4 (12.5%)
	제과점	56 (50.0%)	56 (50.0%)	83 (77.6%)	24 (22.4%)	54 (60.0%)	36 (40.0%)
	기타	41 (70.7%)	17 (29.3%)	47 (85.5%)	8 (14.5%)	37 (77.1%)	11 (22.9%)
가맹 형태	가맹점	648 (52.4%)	589 (47.6%)	933 (82.3%)	200 (17.7%)	581 (61.1%)	370 (38.9%)
	직영점	35 (79.5%)	9 (20.5%)	40 (95.2%)	2 (4.8%)	28 (77.8%)	8 (22.2%)
	잘모름	110 (49.8%)	111 (50.2%)	176 (83.0%)	36 (17.0%)	93 (64.1%)	52 (35.9%)
근속	3개월이하	240 (48.7%)	253 (51.3%)	369 (83.5%)	73 (16.5%)	212 (61.4%)	133 (38.6%)
	6개월이하	157 (55.5%)	126 (44.5%)	224 (84.5%)	41 (15.5%)	132 (60.0%)	88 (40.0%)
	1년이하	135 (52.7%)	121 (47.3%)	193 (79.1%)	51 (20.9%)	118 (57.0%)	89 (43.0%)
	2년이하	131 (55.7%)	104 (44.3%)	191 (84.9%)	34 (15.1%)	119 (65.0%)	64 (35.0%)
	2년초과	118 (55.1%)	96 (44.9%)	159 (82.0%)	35 (18.0%)	110 (67.5%)	53 (32.5%)

- 업태에서는 편의점, 제과점에서 휴게시간 없음 및 휴게시간 근무시 임금 미지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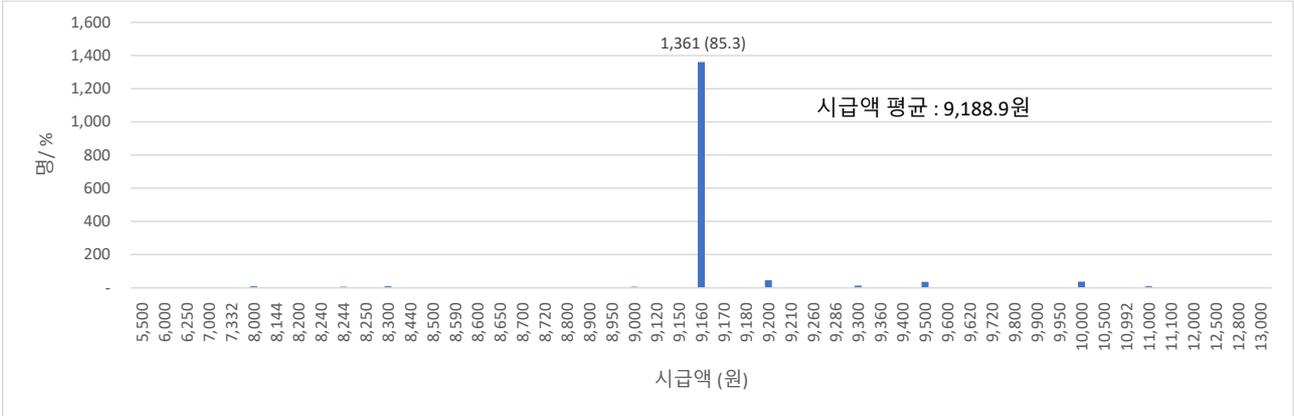
## 5) 임금 및 주휴수당, 퇴직금

### (1) 시급액

○ 주간 시급액을 밝힌 노동자는 1,595명이다. 조사 참여자의 85.3%인 1,361명이 2022년 최저임금 시급액인 9,160원이었다. 시급액 평균은 9,198.9원이었으며, 중위값은 9,160원이다.

- 주간 시급액 기준으로 최하 금액은 5,500원이며 최고 금액은 13,000원이다.
- 주간 시급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61명으로 주간 시급액을 밝힌 1,595명 대비 3.8% 수준이다.

[그림 2-3] 주간 시급액 분포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주간 시급액 평균을 세부 변수별로 보면 40대와 50대, 가맹형태 ‘잘 모름’, 근속 3개월 이하에서 시급액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40대와 50대와 편의점에서는 시급액 평균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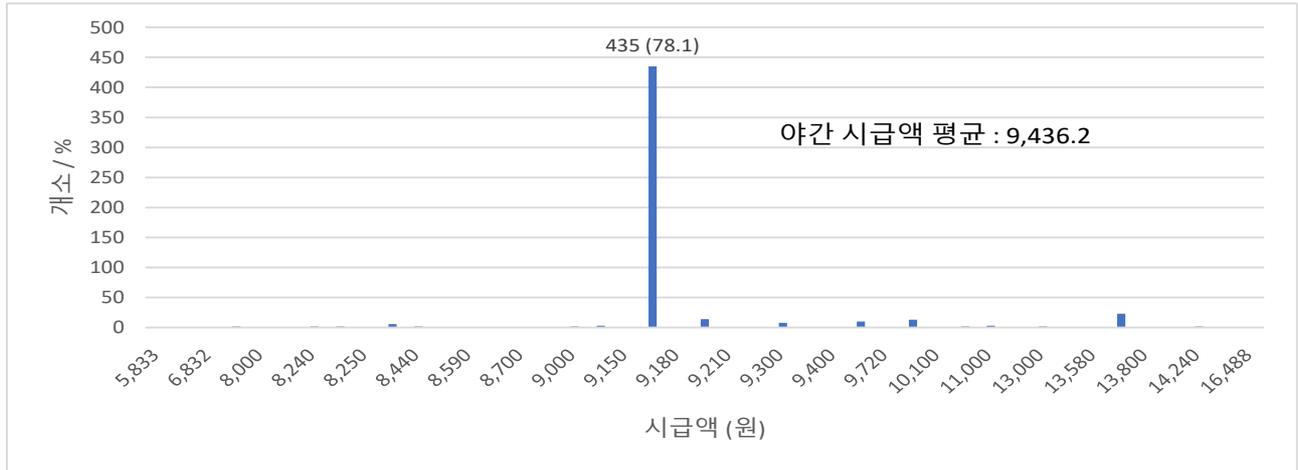
[표 2-10] 세부 변수별 주간 시급액 평균

구분		시급액(원)	구분		시급액(원)
성	남성	9,188.5	가맹형태	가맹점	9,195.8
	여성	9,188.2		직영점	9,261.0
연령	10대	9,160.5	근속	잘모름	9,130.0
	20~24세	9,185.2		3개월이하	9,130.9
	25~29세	9,206.4		6개월이하	9,186.9
	30대	9,309.7		1년이하	9,201.6
	40대	9,096.8		2년이하	9,231.1
	50대이상	9,100.5		2년초과	9,266.6
업태	편의점	9,128.9			
	커피점	9,253.5			
	햄버거점	9,193.6			
	피자점	9,590.0			
	제과점	9,268.5			
	기타	9,209.8			

- 야간 시급액을 밝힌 노동자는 557명이다. 야간 시급액 평균은 9,436.2원이며 78.1%인 435명이 최저 임금 시급액을 받고 있다.
- 야간 시급액의 최저 시급액은 5,833원이며 최고 시급액은 16,488원, 중위값은 9,160원이다.

- 야간 시급액에서 최저임금 미만자는 4명으로 야간시급액을 밝힌 노동자 대비 3.6%이다.

[그림 2-4] 야간시급액 분포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세부 변수별 평균을 보면 남성, 50대 이상, 근속 4개월~6개월에서 야간시급액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50대 이상의 야간시급액 평균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표 2-11] 세부 변수별 야간 시급액 평균

구분		평균(원)	구분		평균(원)	
성	남성	9,326.7	업태	편의점	9,153.9	
	여성	9,595.3		커피점	10,013.2	
연령	10대	9,488.8		햄버거점	12,359.6	
	20~24세	9,365.3		피자점	10,061.5	
	25~29세	9,591.6		제과점	10,728.0	
	30대	9,648.0		기타	9,211.4	
	40대	9,574.8		근속	3개월이하	9,342.7
	50대이상	9,076.6			6개월이하	9,266.1
가맹형태	가맹점	9,479.9			1년이하	9,605.7
	직영점	11,013.8			2년이하	9,412.7
	잘모름	9,107.5	2년초과	9,747.8		

○ 주·야간 시급에서 최저임금 미만자는 70명으로 전체 조사 참여 노동자 1,719명 대비 4.1% 수준이다.

- 2021년 조사에서 최저임금 미만자 수는 77명이었으며 조사 참여 노동자 1,564명 대비 4.9%였다. 2022년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하였다.

- 성별 구성비에서는 여성이 44명, 63.8%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참여자 대비 성별 최저 임금 미만자 비율은 4.0%로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조사 참여자 대비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높은 변수 항목을 보면 연령에서는 50대 이상, 근속에서는 3개월 이하, 업태에서는 편의점, 가맹형태에서는 ‘잘모름’, 근로시간에서는 주 36시간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변수 항목의 노동자가 그만큼 임금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표 2-12]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구분		인원(명)	구성비(%)	조사참여자 대비(%)	구분		인원(명)	구성비(%)	조사참여자 대비(%)
성	남성	25	36.2	4.0	가 맹 형 태	가맹점	55	79.7	4.0
	여성	44	63.8	4.0		직영점	1	1.4	2.0
연 령	10대	7	10.4	3.6		잘모름	13	18.8	4.8
	20~24세	34	50.7	3.7	근 속	3개월이하	38	55.1	6.6
	25~29세	12	17.9	4.1		6개월이하	8	11.6	2.4
	30대	1	1.5	0.7		1년이하	6	8.7	2.1
	40대	3	4.5	4.6		2년이하	7	10.1	2.7
	50대이상	10	14.9	10.8		2년초과	10	14.5	4.3
	업 태	편의점	66	94.3		6.5	근 로 시 간	15시간미만	35
커피점		4	5.7	1.1	36시간미만	15		21.4	2.9
햄버거점		-	-	-	36시간이상	20		28.6	7.8
피자점		-	-	-					
제과점		-	-	-					
기타		-	-	-					

- 2021년 11월부터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다.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 및 교부 방식을 보면 27.4%, 468명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까지 포함하면 실제 미수령 노동자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매월 + 가끔)받고 있는 노동자 대부분(71.0%, 631명)은 문자 메시지 형태로 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다.

[표 2-13]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 및 교부 방식

수령 여부			교부 방식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매월받음	836	48.9	서면	157	17.7

수령 여부			교부 방식		
가끔받음	66	3.9	문자(모바일)메세지	631	71.0
못받음	468	27.4	이메일	65	7.3
잘모름	340	19.9	기타	36	4.0
전체	1,710	100.0	전체	889	100.0

○ 세부 변수별로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를 보면 여성, 10대와 50대 이상, 업태에서는 편의점, 제과점 및 기타점에서 미수령 비율이 높다.

- 교부 방식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교부 방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4] 세부 변수별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및 교부 방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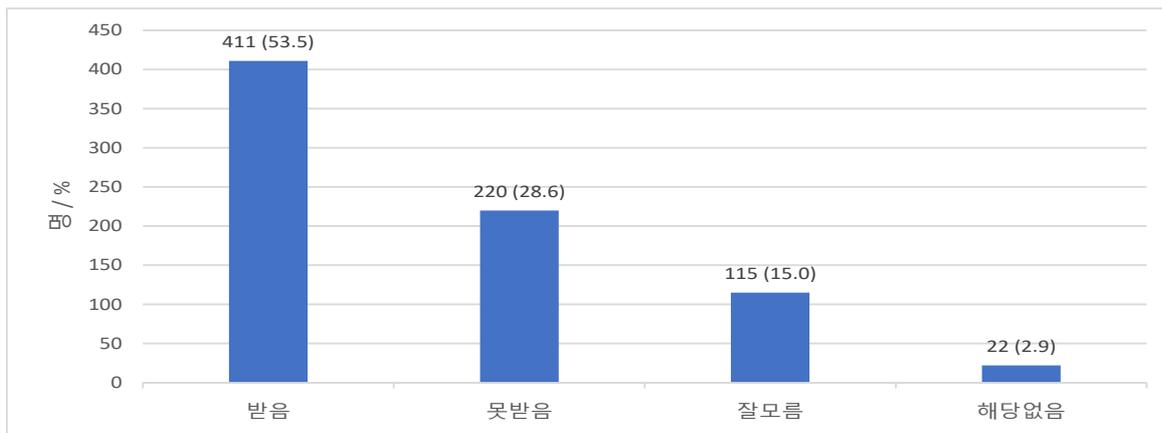
구분		임금명세서 교부여부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매월받음	가끔받음	못받음	잘모름	서면	문자(모바일)메세지	이메일	기타
성별	남성	307 (49.3%)	21 (3.4%)	161 (25.8%)	134 (21.5%)	65 (20.1%)	225 (69.7%)	20 (6.2%)	13 (4.0%)
	여성	527 (48.6%)	45 (4.2%)	307 (28.3%)	205 (18.9%)	91 (16.1%)	405 (71.8%)	45 (8.0%)	23 (4.1%)
연령대	10대	72 (37.1%)	7 (3.6%)	57 (29.4%)	58 (29.9%)	16 (20.3%)	57 (72.2%)	4 (5.1%)	2 (2.5%)
	20~24세	410 (44.6%)	38 (4.1%)	260 (28.3%)	211 (23.0%)	60 (13.6%)	340 (76.9%)	25 (5.7%)	17 (3.8%)
	25~29세	164 (56.0%)	14 (4.8%)	73 (24.9%)	42 (14.3%)	35 (20.0%)	115 (65.7%)	19 (10.9%)	6 (3.4%)
	30대	99 (69.7%)	2 (1.4%)	31 (21.8%)	10 (7.0%)	18 (18.2%)	63 (63.6%)	12 (12.1%)	6 (6.1%)
	40대	37 (58.7%)	2 (3.2%)	18 (28.6%)	6 (9.5%)	10 (25.6%)	22 (56.4%)	5 (12.8%)	2 (5.1%)
	50대이상	50 (53.8%)	3 (3.2%)	29 (31.2%)	11 (11.8%)	16 (31.4%)	32 (62.7%)	0 (0.0%)	3 (5.9%)
업태	편의점	428 (42.1%)	42 (4.1%)	323 (31.8%)	224 (22.0%)	86 (18.7%)	334 (72.5%)	22 (4.8%)	19 (4.1%)
	커피점	215 (58.7%)	13 (3.6%)	63 (17.2%)	75 (20.5%)	22 (9.7%)	179 (78.9%)	21 (9.3%)	5 (2.2%)
	햄버거점	65 (73.9%)	1 (1.1%)	10 (11.4%)	12 (13.6%)	20 (31.7%)	33 (52.4%)	7 (11.1%)	3 (4.8%)
	피자점	33 (75.0%)	2 (4.5%)	4 (9.1%)	5 (11.4%)	12 (34.3%)	14 (40.0%)	6 (17.1%)	3 (8.6%)
	제과점	63 (48.5%)	6 (4.6%)	40 (30.8%)	21 (16.2%)	12 (17.4%)	47 (68.1%)	6 (8.7%)	4 (5.8%)
	기타	32 (49.2%)	2 (3.1%)	28 (43.1%)	3 (4.6%)	5 (14.7%)	24 (70.6%)	3 (8.8%)	2 (5.9%)
가맹형태	가맹점	706 (51.1%)	52 (3.8%)	360 (26.0%)	264 (19.1%)	133 (17.8%)	535 (71.7%)	49 (6.6%)	29 (3.9%)
	직영점	35 (71.4%)	3 (6.1%)	8 (16.3%)	3 (6.1%)	6 (16.2%)	21 (56.8%)	6 (16.2%)	4 (10.8%)

구분		임금명세서 교부여부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매월받음	가끔받음	못받음	잘모름	서면	문자(모바일)메세지	이메일	기타
	잘모름	89 (33.0%)	11 (4.1%)	98 (36.3%)	72 (26.7%)	16 (16.0%)	71 (71.0%)	10 (10.0%)	3 (3.0%)
근속구간	3개월이하	215 (37.9%)	9 (1.6%)	139 (24.5%)	204 (36.0%)	41 (18.6%)	162 (73.3%)	13 (5.9%)	5 (2.3%)
	6개월이하	170 (51.8%)	18 (5.5%)	104 (31.7%)	36 (11.0%)	25 (13.4%)	146 (78.1%)	6 (3.2%)	10 (5.3%)
	1년이하	156 (54.0%)	21 (7.3%)	78 (27.0%)	34 (11.8%)	33 (19.0%)	119 (68.4%)	16 (9.2%)	6 (3.4%)
	2년이하	137 (52.5%)	9 (3.4%)	78 (29.9%)	37 (14.2%)	16 (11.2%)	108 (75.5%)	16 (11.2%)	3 (2.1%)
	2년초과	137 (58.8%)	8 (3.4%)	63 (27.0%)	25 (10.7%)	37 (25.7%)	83 (57.6%)	13 (9.0%)	11 (7.6%)

## (2) 주휴수당

- 전체 조사 참여자중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는 773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수령 여부를 보면 ‘받음’ 으로 응답한 인원이 411명(53.5%)이었으며, ‘못받음’ 이 220명, 28.6%로 나타났다. ‘해당없음’ 으로 응답한 인원은 22명, 2.9%로 나타났으며, ‘잘모름’ 은 115명(15.0%)이다.
- ‘잘 모름’ 까지 포함할 경우, 주휴수당 미수령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주휴수당 수령 여부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세부 변수별로 보면 남성, 10대와 50대 이상, 편의점, 근속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에서 미수령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15] 세부 변수별 주휴수당 수령 여부(주 15시간 이상자)

(단위 : 명)

구분		받음	못받음	잘 모름	해당 없음	구분		받음	못받음	잘 모름	해당 없음
성	남성	174 (49.3%)	107 (30.3%)	61 (17.3%)	11 (3.1%)	가 맹 형 태	가맹점	342 (55.0%)	178 (28.6%)	82 (13.2%)	20 (3.2%)
	여성	237 (57.1%)	113 (27.2%)	54 (13.0%)	11 (2.7%)		직영점	28 (84.8%)	2 (6.1%)	3 (9.1%)	0 (0.0%)
10대	23 (46.0%)	18 (36.0%)	6 (12.0%)	3 (6.0%)	잘모름		36 (33.3%)	40 (37.0%)	30 (27.8%)	2 (1.9%)	
연령	20~24세	171 (48.3%)	110 (31.1%)	60 (16.9%)	13 (3.7%)	근 속	3개월이하	97 (46.0%)	58 (27.5%)	46 (21.8%)	10 (4.7%)
	25~29세	104 (65.8%)	30 (19.0%)	23 (14.6%)	1 (.6%)		6개월이하	58 (45.0%)	48 (37.2%)	23 (17.8%)	0 (0.0%)
	30대	64 (69.6%)	14 (15.2%)	11 (12.0%)	3 (3.3%)		1년이하	81 (60.4%)	34 (25.4%)	13 (9.7%)	6 (4.5%)
	40대	21 (51.2%)	12 (29.3%)	7 (17.1%)	1 (2.4%)		2년이하	81 (59.1%)	38 (27.7%)	16 (11.7%)	2 (1.5%)
	50대이상	25 (36.2%)	35 (50.7%)	8 (11.6%)	1 (1.4%)		2년초과	87 (61.7%)	38 (27.0%)	13 (9.2%)	3 (2.1%)
	업태	편의점	141 (32.4%)	189 (43.4%)	90 (20.7%)		15 (3.4%)				
	커피점	126 (80.3%)	12 (7.6%)	15 (9.6%)	4 (2.5%)						
	햄버거점	58 (87.9%)	3 (4.5%)	4 (6.1%)	1 (1.5%)						
	피자점	32 (84.2%)	4 (10.5%)	1 (2.6%)	1 (2.6%)						
	제과점	34 (75.6%)	6 (13.3%)	4 (8.9%)	1 (2.2%)						
	기타	20 (74.1%)	6 (22.2%)	1 (3.7%)	0 (0.0%)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지만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 노동자 242명(못받음 + 해당없음)의 주휴수당액을 추정하면 1인 평균 48,362.5원, 월 기준으로 1인 평균 약 210,100원이다.

[표 2-16] 미지급 추정 주휴수당액

구분		주휴수당액(원)	구분		주휴수당액(원)
연령	10대	37,569.1	가맹형태	가맹점	49,754.1
	20~24세	44,177.1		직영점	45,800.0
	25~29세	50,776.7		잘모름	41,936.9
	30대	55,997.9	근속	3개월이하	51,825.1
	40대	61,050.0		6개월이하	43,594.0
	50대이상	59,319.5		1년이하	44,499.0
업태	편의점	48,779.2	2년이하	44,352.6	
	커피점	38,526.3	성별	남성	52,052.1

구분		주휴수당액(원)	구분		주휴수당액(원)
	햄버거점	65,036.0	전체 평균	여성	44,796.0
	피자점	66,299.2		48,362.5	
	제과점	37,098.0			
	기타	42,558.0			

### (3) 퇴직금

- 전체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 하는 곳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지 여부를 보면 명시적으로 ‘받는다’ 고 밝힌 비율은 17.9%, 305명이다.
-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근속자이면서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는 312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받는다는 비율을 보면 46.6%, 143명이다. 해당없음을 포함해 51명(16.6%)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잘 모름’ 까지 고려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7] 퇴직금 수령 여부

구분	전체		근속 1년이상 & 주 15시간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받음	305	17.9	143	46.6
못받음	121	7.1	43	14.0
잘모름	496	29.2	113	36.8
해당없음	778	45.8	8	2.6
소계	1,700	100.0	307	100.0

-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세부 변수별로 보면 남성, 근속 1년 초과, 50대 이상에서 퇴직금 미수령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2-18] 세부 변수별 퇴직금 수령 여부(1년이상 & 주15시간 이상)

구분		받음	못받음	잘모름	해당없음	구분		받음	못받음	잘모름	해당없음
성	남성	116 (18.7%)	61 (9.9%)	204 (33.0%)	238 (38.4%)	근속	3개월이하	59 (10.4%)	34 (6.0%)	160 (28.2%)	314 (55.4%)
	여성	187 (17.3%)	60 (5.6%)	292 (27.1%)	539 (50.0%)		6개월이하	41 (12.6%)	17 (5.2%)	106 (32.5%)	162 (49.7%)
연령	10대	17 (8.8%)	7 (3.6%)	57 (29.4%)	113 (58.2%)		1년이하	61 (21.1%)	18 (6.2%)	78 (27.0%)	132 (45.7%)
	20~24세	109 (11.8%)	55 (6.0%)	282 (30.7%)	474 (51.5%)		2년이하	60 (23.3%)	25 (9.7%)	79 (30.7%)	93 (36.2%)

구분		받음	못받음	잘모름	해당없음	구분		받음	못받음	잘모름	해당없음
	25~29세	83 (28.6%)	19 (6.6%)	79 (27.2%)	109 (37.6%)	업 태	2년초과	79 (34.5%)	21 (9.2%)	65 (28.4%)	64 (27.9%)
	30대	53 (38.1%)	12 (8.6%)	34 (24.5%)	40 (28.8%)		편의점	95 (9.4%)	103 (10.2%)	314 (31.1%)	499 (49.4%)
	40대	17 (27.9%)	6 (9.8%)	16 (26.2%)	22 (36.1%)		커피점	87 (23.9%)	5 (1.4%)	108 (29.7%)	164 (45.1%)
	50대이상	26 (28.9%)	20 (22.2%)	26 (28.9%)	18 (20.0%)		햄버거점	52 (59.8%)	2 (2.3%)	16 (18.4%)	17 (19.5%)
가 맹 형 태	가맹점	252 (18.3%)	103 (7.5%)	388 (28.2%)	631 (45.9%)	피자점	34 (77.3%)	0 (0.0%)	8 (18.2%)	2 (4.5%)	
	직영점	30 (61.2%)	2 (4.1%)	6 (12.2%)	11 (22.4%)	제과점	21 (16.3%)	7 (5.4%)	33 (25.6%)	68 (52.7%)	
	잘모름	21 (7.8%)	16 (5.9%)	99 (36.8%)	133 (49.4%)	기타	16 (24.6%)	4 (6.2%)	17 (26.2%)	28 (43.1%)	

## 6) 인격적 대우

○ 폭언·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 유경험자는 276명으로 월 평균 경험 횟수는 3.3회이다.

[표 2-19] 폭언·폭력 실태

구분	사업주 폭언·폭력		동료 폭언·폭력		손님 폭언·폭력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있음	10	0.6	2	0.1	276 (한달 평균 : 3.3회)	16.1
없음	1,706	99.4	1,716	99.9	1,440	83.9

- 동료에 의한 폭언·폭력은 2명, 사업주에 의한 폭언·폭력 유경험자는 10명이다.

- 손님 폭언·폭력을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연령에서는 40대, 근속 2년 초과, 남성에서 폭언·폭력 유경험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업태에서 편의점과 기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1달 평균 횟수는 10대, 근속 1년 이하, 직영점, 편의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2-20] 세부 변수별 손님의 폭언·폭력 실태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성	남성	113 (18.1%)	3.3	511 (81.9%)	근 속	3개월이하	50 (8.7%)	2.9	523 (91.3%)
	여성	163 (15.0%)	3.2	926 (85.0%)		6개월이하	44 (13.4%)	3.7	284 (86.6%)
연 령	10대	17 (8.7%)	5.2	179 (91.3%)		1년이하	52 (17.9%)	5.1	239 (82.1%)
	20~24세	128 (13.9%)	2.8	794 (86.1%)		2년이하	63 (24.3%)	1.8	196 (75.7%)

구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가 맹 업 태	25~29세	71 (24.2%)	3.7	222 (75.8%)	2년초과	60 (25.8%)	3.1	173 (74.2%)
	30대	25 (17.6%)	3.8	117 (82.4%)	편의점	179 (17.6%)	4.3	839 (82.4%)
	40대	17 (26.2%)	1.6	48 (73.8%)	커피점	38 (10.4%)	3.7	329 (89.6%)
	50대이상	17 (18.5%)	2.9	75 (81.5%)	햄버거점	15 (16.7%)	2.8	75 (83.3%)
	가맹점	216 (15.6%)	3.2	1,173 (84.4%)	피자점	5 (11.4%)	3.6	39 (88.6%)
	직영점	10 (20.4%)	8.0	39 (79.6%)	제과점	17 (12.9%)	3.3	115 (87.1%)
	잘모름	49 (18.2%)	2.7	220 (81.8%)	기타	22 (33.8%)	2.9	43 (66.2%)

- 성희롱 실태를 보면 사업주나 동료의 성희롱 유경험자는 각각 2명이다.
- 성희롱 가해자는 대부분 손님으로서 손님 성희롱 유경험자는 32명이다.

[표 2-21] 성희롱 실태

구분	사업주 성희롱		동료 성희롱		손님 성희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있음	2	.1	2	.1	32	1.9
없음	1,715	99.9	1,716	99.9	1,683	98.1

- 손님 성희롱 유경험자중 성별에서는 여성이 30명, 연령에서는 30세 미만인 20명, 업태에서는 편의점이 21명을 차지하고 있다.

## 7) 임금 지급

- 임금 지급 실태를 보면 체불이나 파손·분실 등의 이유로 임금 삭감을 경험한 노동자는 각각 16명, 31명이다.
- 임금 삭감 유경험자 31명중 24명(77.4%)은 편의점 단시간 노동자이다. 나머지 1명은 무응답하였다.
- 마감후 차액 발생 유경험자는 657명, 38.7%에 이르고 있다. 차액발생시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비율도 17.7%에 달하고 있다.

[표 2-22] 임금 지급 실태

구분	임금 체불		임금 삭감		마감후 차액 처리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본인부담	사업주부담	반반부담	경험한적없음
인원 (명)	16	1,689	31	1,671	301	325	31	1,040
비율 (%)	.9	99.1	1.8	98.2	17.7	19.2	1.8	61.3

- 마감후 차액발생 실태를 세부 변수별로 보면 남성, 40대 이상, 근속이 길수록 차액 발생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반반부담 포함)이 높은 편이다.
- 업태에서는 편의점에서 본인 부담 비율이 확연히 높은 편이다.

[표 2-23] 세부 변수별 마감후 차액 처리

구분		본인 부담	사업주 부담	반반 부담	경험한 적없음	구분	본인 부담	사업주 부담	반반 부담	경험한 적없음	
성	남성	125 (20.2%)	114 (18.4%)	10 (1.6%)	371 (59.8%)	근속	3개월이하	81 (14.4%)	75 (13.3%)	4 (.7%)	404 (71.6%)
	여성	176 (16.4%)	210 (19.6%)	21 (2.0%)	667 (62.1%)		6개월이하	61 (18.7%)	50 (15.3%)	7 (2.1%)	209 (63.9%)
연령	10대	33 (17.2%)	36 (18.8%)	2 (1.0%)	121 (63.0%)	업태	1년이하	56 (19.5%)	57 (19.9%)	8 (2.8%)	166 (57.8%)
	20~24세	152 (16.6%)	154 (16.8%)	13 (1.4%)	596 (65.1%)		2년이하	51 (19.9%)	63 (24.6%)	4 (1.6%)	138 (53.9%)
	25~29세	51 (17.7%)	61 (21.2%)	8 (2.8%)	168 (58.3%)		2년초과	47 (20.3%)	74 (31.9%)	8 (3.4%)	103 (44.4%)
	30대	25 (17.7%)	38 (27.0%)	6 (4.3%)	72 (51.1%)		편의점	276 (27.3%)	161 (15.9%)	23 (2.3%)	550 (54.5%)
	40대	13 (21.0%)	19 (30.6%)	1 (1.6%)	29 (46.8%)		커피점	8 (2.2%)	84 (23.1%)	5 (1.4%)	266 (73.3%)
	50대이상	23 (24.7%)	17 (18.3%)	1 (1.1%)	52 (55.9%)		햄버거점	5 (5.7%)	18 (20.7%)	1 (1.1%)	63 (72.4%)
	가맹점	236 (17.2%)	272 (19.8%)	23 (1.7%)	844 (61.4%)		피자점	2 (4.5%)	17 (38.6%)	0 (0.0%)	25 (56.8%)
가맹형태	직영점	5 (10.0%)	7 (14.0%)	2 (4.0%)	36 (72.0%)	제과점	9 (6.9%)	29 (22.3%)	2 (1.5%)	90 (69.2%)	
	잘모름	58 (22.1%)	45 (17.1%)	6 (2.3%)	154 (58.6%)	기타	1 (1.6%)	16 (25.4%)	0 (0.0%)	46 (73.0%)	

## 8) 기타 및 사회보험

- 초과, 추가노동 여부 실태를 보면, 초과노동 유경험자는 26명에 불과하였지만 추가노동 유경험자는 355명, 20.7%이다.

[표 2-24] 초과, 추가노동 경험 유무

구분	초과 노동		추가 노동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있음	26	1.5	355	20.7
없음	1,689	98.3	1,343	78.1
무응답	4	.2	21	1.2
소계	1,719	100.0	1,719	100.0

- 세부 변수별로 추가노동 실태를 보면 여성, 연령 10대, 직영점, 근속 6개월 이상, 커피점과 햄버거점

에서 상대적으로 추가노동 유경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2-25] 세부 변수별 추가노동 실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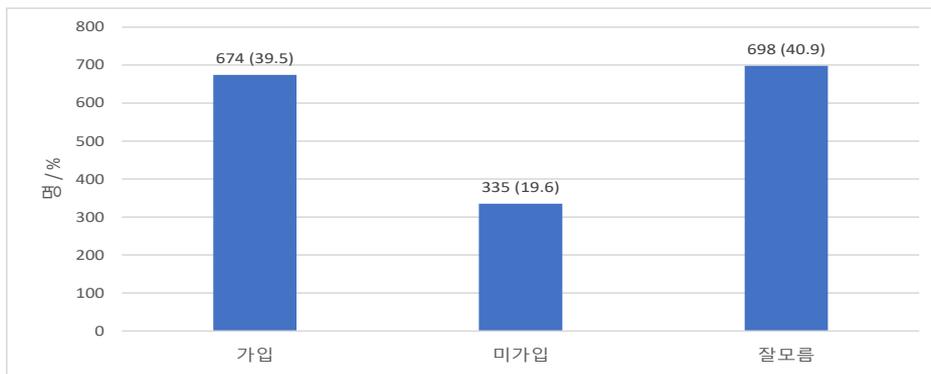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구분		있음	없음
성	남성	109 (17.6%)	509 (82.4%)	근속	3개월이하	88 (15.5%)	479 (84.5%)
	여성	246 (22.8%)	832 (77.2%)		6개월이하	66 (20.3%)	259 (79.7%)
연령	10대	50 (25.8%)	144 (74.2%)		1년이하	66 (22.9%)	222 (77.1%)
	20~24세	197 (21.5%)	720 (78.5%)		2년이하	77 (30.2%)	178 (69.8%)
	25~29세	61 (21.1%)	228 (78.9%)		2년초과	52 (22.5%)	179 (77.5%)
	30대	26 (18.4%)	115 (81.6%)		업태	편의점	169 (16.8%)
	40대	7 (11.1%)	56 (88.9%)	커피점		101 (27.7%)	264 (72.3%)
50대이상	12 (13.5%)	77 (86.5%)	햄버거점	29 (32.6%)		60 (67.4%)	
가맹형태	가맹점	298 (21.7%)	1075 (78.3%)	피자점		9 (20.5%)	35 (79.5%)
	직영점	12 (24.0%)	38 (76.0%)	제과점		28 (21.2%)	104 (78.8%)
	잘모름	43 (16.2%)	223 (83.8%)	기타	19 (29.7%)	45 (70.3%)	

○ 추가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를 보면 유경험자중 316명(89.0%)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혔다.

○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보면 674명, 39.5%는 가입한 것으로 밝혔다. 미가입을 명시적으로 밝힌 단시간 노동자는 335명, 19.6%이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698명, 40.9%이다.

- ‘잘 모름’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미가입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6] 사회보험 가입 실태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근속에서는 1년 초과에서 상대적으로 미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표 2-26] 세부 변수별 사회보험 가입 상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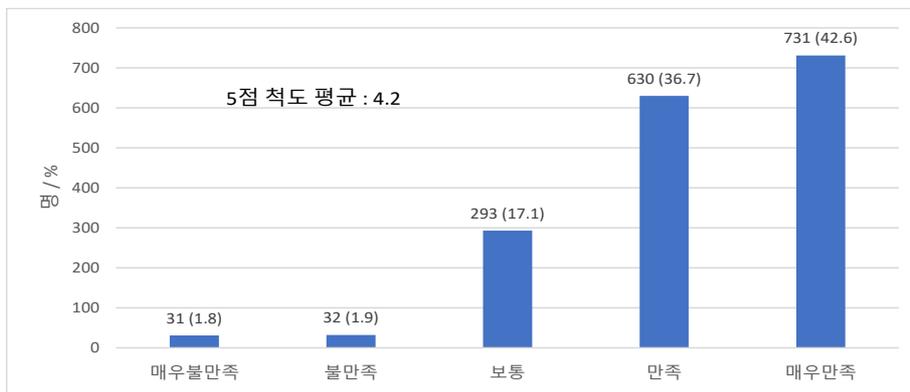
구분		가입	미가입	잘모름	구분		가입	미가입	잘모름
성	남성	272 (43.6%)	95 (15.2%)	257 (41.2%)	근속	3개월이하	200 (35.0%)	109 (19.1%)	263 (46.0%)
	여성	401 (37.1%)	239 (22.1%)	440 (40.7%)		6개월이하	119 (36.4%)	65 (19.9%)	143 (43.7%)
연령	10대	51 (26.0%)	35 (17.9%)	110 (56.1%)	근속	1년이하	117 (40.8%)	48 (16.7%)	122 (42.5%)
	20~24세	321 (35.0%)	171 (18.6%)	426 (46.4%)		2년이하	105 (40.2%)	60 (23.0%)	96 (36.8%)
	25~29세	148 (50.7%)	57 (19.5%)	87 (29.8%)		2년초과	120 (52.6%)	48 (21.1%)	60 (26.3%)
	30대	81 (58.3%)	28 (20.1%)	30 (21.6%)	업태	편의점	345 (33.9%)	208 (20.5%)	464 (45.6%)
	40대	33 (51.6%)	13 (20.3%)	18 (28.1%)		커피점	172 (47.4%)	72 (19.8%)	119 (32.8%)
	50대이상	38 (41.3%)	31 (33.7%)	23 (25.0%)		햄버거점	51 (57.3%)	12 (13.5%)	26 (29.2%)
	가맹점 태	가맹점	544 (39.4%)	278 (20.2%)		557 (40.4%)	피자점	34 (77.3%)	4 (9.1%)
직영점		37 (75.5%)	7 (14.3%)	5 (10.2%)	제과점	46 (35.4%)	28 (21.5%)	56 (43.1%)	
잘모름		89 (33.0%)	49 (18.1%)	132 (48.9%)	기타	26 (40.6%)	11 (17.2%)	27 (42.2%)	

- 모든 변수에서 ‘잘 모름’의 비율이 20%~50% 초반을 보이고 있어 실제 미가입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근무 만족도와 복수 일자리 여부

○ 현재 하고 있는 단시간 일에 대한 근무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는 비율이 79.3%에 달하고 있다. 5점 척도 평균 점수에서도 4.2점이 나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7] 일자리 만족도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세부 변수별로 만족도를 5점 척도 점수 평균으로 보면 대부분의 변수에서 5점 척도 평균 점수가 4.0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50대이상, 기타 업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낮은 편이다.

[표 2-27] 세부 변수별 일자리 만족도(5점 척도)

구분		평균	구분		평균	
성	남성	4.2	업태	편의점	4.1	
	여성	4.2		커피점	4.3	
연령	10대	4.2		햄버거점	4.1	
	20~24세	4.2		피자점	4.3	
	25~29세	4.1		제과점	4.1	
	30대	4.1		기타	3.9	
	40대	4.1		근속	3개월이하	4.1
	50대이상	3.8			6개월이하	4.2
가맹형태	가맹점	4.2			1년이하	4.2
	직영점	4.2			2년이하	4.1
	잘모름	4.0	2년초과	4.2		

○ 현재 하고 있는 단시간 일 이외에 추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409명(23.8%)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추가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 10대와 50대 이상에서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근속에서는 6개월 이하에서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2-28] 세부 변수별 추가 부업 여부와 일 개수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구분	있음		없음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연령	10대	52 (26.5%)	1.1	144 (73.5%)	가 맹 형 태	가맹점	340 (24.5%)	1.1	1,046 (75.5%)	
	20~24세	212 (23.0%)	1.1	710 (77.0%)		직영점	8 (16.0%)	1.1	42 (84.0%)	
	25~29세	69 (23.6%)	1.1	223 (76.4%)		잘모름	59 (21.9%)	1.1	210 (78.1%)	
	30대	34 (23.9%)	1.0	108 (76.1%)		근 속	3개월이하	156 (27.3%)	1.1	415 (72.7%)
	40대	16 (24.6%)	1.0	49 (75.4%)			6개월이하	91 (27.7%)	1.1	237 (72.3%)
	50대이상	26 (28.3%)	1.0	66 (71.7%)			1년이하	63 (21.7%)	1.1	227 (78.3%)
업 태	편의점	256 (25.1%)	1.1	762 (74.9%)	2년이하		51 (19.5%)	1.1	210 (80.5%)	
	커피점	94 (25.8%)	1.1	271 (74.2%)	2년이상	44 (19.0%)	1.0	188 (81.0%)		
	햄버거점	13 (14.4%)	1.0	77 (85.6%)	성	남성	121 (19.4%)	1.0	503 (80.6%)	

구분	있음		없음	구분	있음		없음
	개수	비율(%)			개수	비율(%)	
피자점	3 (6.8%)	1.0	41 (93.2%)	여성	288 (26.5%)	1.1	800 (73.5%)
제과점	32 (24.2%)	1.1	100 (75.8%)				
기타	11 (16.9%)	1.0	54 (83.1%)				

- 대체로 추가로 하고 있는 부업 개수는 1개 내외이다.

## 2절 프랜차이즈 사업주 실태조사

### 1. 조사 참여 점포 개관

○ 단시간 노동자의 사용자라 할 수 있는 부천시역 프랜차이즈 점주(점주 가족 포함, 이하 동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는 단시간 노동자 설문과 동일하게 노동권익서포터즈가 점포를 방문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프랜차이즈 점주 실태조사에는 부천 지역 프랜차이즈 점주 353명(개소)이 참여하였다.

- 업태에서는 편의점이 61.4%이며, 커피점이 20.9%이다.

- 가맹형태에서는 순수가맹점이 66.0%, 위탁가맹점이 30.7%이다. 미가맹점은 1개소이다.

- 점포 소유형태에서 월세 비율이 74.4%이며, 노동자 규모 5인 이상 비율은 20.7%이다.

- 점포 이력에서는 4년 초과가 43.0%에 이르고 있다. 조사 참여 점포의 평균 이력은 4.9년이다.

- 조사 참여 점주(가족)의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30.8%이며 60대 이상까지 포함하면 49.1%로 거의 1/2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9] 조사 참여 점포 개관

구분	구분	개소	비율(%)	구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성	남성	145	51.2	가맹 형태	위탁가맹점	100	30.7
	여성	138	48.8		순수가맹점	215	66.0
연령	20대이하	21	7.5		직영점	10	3.1
	30대	52	18.6	미가맹점	1	.3	
	40대	69	24.7	소유 형태	자가	27	8.4
	50대	86	30.8		월세	238	74.4
	60대이상	51	18.3		전세	6	1.9
	평균	47.6세			보증부월세	34	10.6

구분		개소	비율(%)	구분		개소	비율(%)
업태	편의점	215	61.4	이력	본사소유	15	4.7
	커피점	73	20.9		6개월이하	27	8.6
	햄버거점	16	4.6		2년이하	78	24.8
	피자점	18	5.1		4년이하	74	23.6
	제과점	24	6.9		4년초과	135	43.0
	기타	4	1.1		평균	4.9년	
규모	5인미만	280	79.3				
	5인이상	73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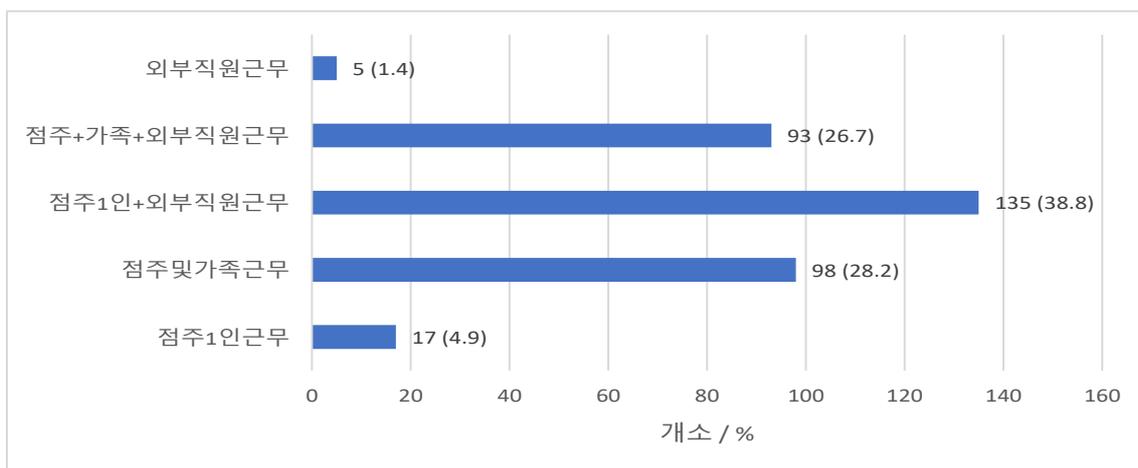
- 2021년도 조사에서는 276개소가 점주 설문에 참여하였다. 2022년도 조사에서는 편의점 46개소, 커피점 27개소가 증가하였다.

## 2. 가맹점 운영 실태

### 1) 점포 근무 형태 및 직원 현황

- 1주일을 기준으로 조사 참여 점포의 근무형태를 보면 115개소(33.0%)가 점주, 또는 점주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점포이다. 2021년 조사에서 해당 비율은 15.9%로서 이번 조사에서 17.1%p 증가하였다.
- 외부 직원으로만 운영되는 점포는 5개소였으며, 2/3(65.5%)에 이르는 점포는 점주(가족) + 외부 직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8] 점포 운영 형태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세부 변수별로 운영형태를 보면 업태에서는 편의점과 커피점, 가맹형태에서는 위탁 및 순수가맹점에서 점주 및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점포 소유형태에서는 자가 및 월세에서 해당 비율이 높다.

[표 2-30] 세부 변수별 점포 운영 형태 (단위 : 개소)

구분		점주1인근무	점주및가족근무	점주1인+외부 직원근무	점주+가족+ 외부직원근무	외부직원만 근무
소유	자가	0 (0.0%)	11 (40.7%)	8 (29.6%)	8 (29.6%)	0 (0.0%)
	월세	13 (5.5%)	65 (27.5%)	96 (40.7%)	59 (25.0%)	3 (1.3%)
	전세	0 (0.0%)	1 (20.0%)	2 (40.0%)	2 (40.0%)	0 (0.0%)
	보증부월세	1 (3.0%)	8 (24.2%)	14 (42.4%)	10 (30.3%)	0 (0.0%)
	본사소유	0 (0.0%)	4 (26.7%)	6 (40.0%)	4 (26.7%)	1 (6.7%)
업태	편의점	4 (1.9%)	64 (30.2%)	74 (34.9%)	65 (30.7%)	5 (2.4%)
	커피점	10 (13.7%)	17 (23.3%)	30 (41.1%)	16 (21.9%)	0 (0.0%)
	햄버거점	2 (13.3%)	1 (6.7%)	10 (66.7%)	2 (13.3%)	0 (0.0%)
	피자점	1 (5.6%)	12 (66.7%)	4 (22.2%)	1 (5.6%)	0 (0.0%)
	제과점	0 (0.0%)	2 (8.3%)	14 (58.3%)	8 (33.3%)	0 (0.0%)
	기타	0 (0.0%)	2 (50.0%)	2 (50.0%)	0 (0.0%)	0 (0.0%)
이력	6개월이하	0 (0.0%)	6 (22.2%)	11 (40.7%)	8 (29.6%)	2 (7.4%)
	2년이하	4 (5.1%)	20 (25.6%)	29 (37.2%)	25 (32.1%)	0 (0.0%)
	4년이하	4 (5.4%)	13 (17.6%)	38 (51.4%)	17 (23.0%)	2 (2.7%)
	4년초과	7 (5.3%)	42 (31.6%)	47 (35.3%)	36 (27.1%)	1 (8%)
가 맹 형 태	위탁가맹점	3 (3.1%)	32 (32.7%)	37 (37.8%)	25 (25.5%)	1 (1.0%)
	순수가맹점	11 (5.2%)	56 (26.3%)	81 (38.0%)	61 (28.6%)	4 (1.9%)
	직영점	0 (0.0%)	2 (20.0%)	7 (70.0%)	1 (10.0%)	0 (0.0%)
	미가맹점	0 (0.0%)	1 (100.0%)	0 (0.0%)	0 (0.0%)	0 (0.0%)

- 조사 참여 점포에서 근무하는 외부 직원(단시간 노동자) 총수는 884명이며 평균 노동자 수는 2.5명이다.
- 조사 참여 점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에는 평균 2.2명이, 커피점은 2.5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평균 고용인원이 가장 큰 업태는 제과점이다.

[표 2-31] 세부 변수별 외부직원 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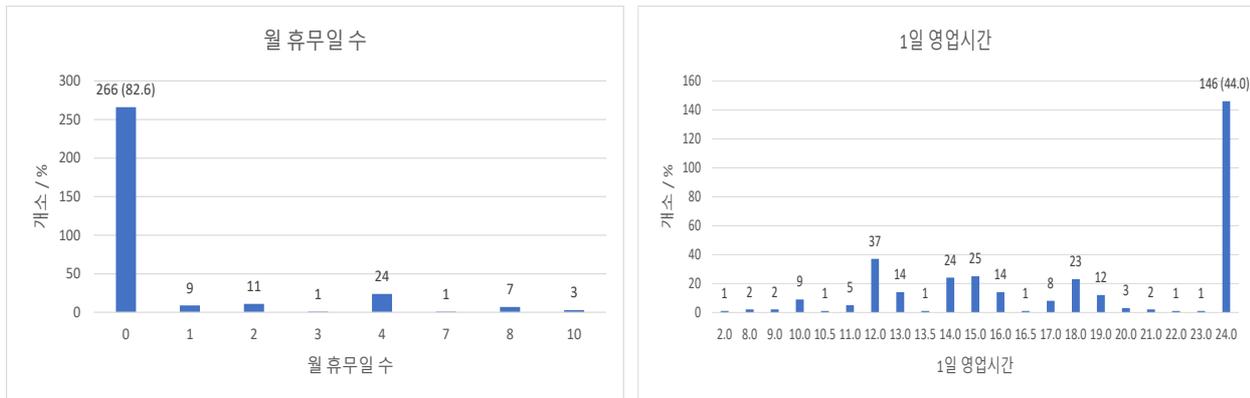
구분		평균	구분		평균
소유형태	자가	2.1	업태	편의점	2.2
	월세	2.6		커피점	2.5
	전세	2.3		햄버거점	7.0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가맹형태	보증부월세	2.6	이력	피자점	0.8
	본사소유	3.2		제과점	3.8
	위탁가맹점	2.1		기타	2.0
	순수가맹점	2.5	6개월이하	2.9	
	직영점	7.9	2년이하	2.5	
	미가맹점	0.0	4년이하	3.6	
			4년초과	2.2	

## 2) 월 휴일 및 영업시간

- 월 평균 휴일 수를 보면, 266개 점포(82.6%)는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일 운영시간을 보면 조사 참여 점포의 44.0%, 146개소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 2021년 조사에서는 해당 비율이 각각 86.9%, 49.1%였다. 2022년 조사에서는 약간 하락하였다.

[그림 2-9] 월 휴무일 수 및 1일 영업시간



\* 괄호 안 수치는 비율치임.

- 업태별로 월 휴일 수를 보면, 휴일 수 '0' 인 점포 266개소중 63.5%, 169개소가 편의점이며 14개소는 커피점이다. 휴일 수 0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제과점이다.

[표 2-32] 업태별 월 휴무일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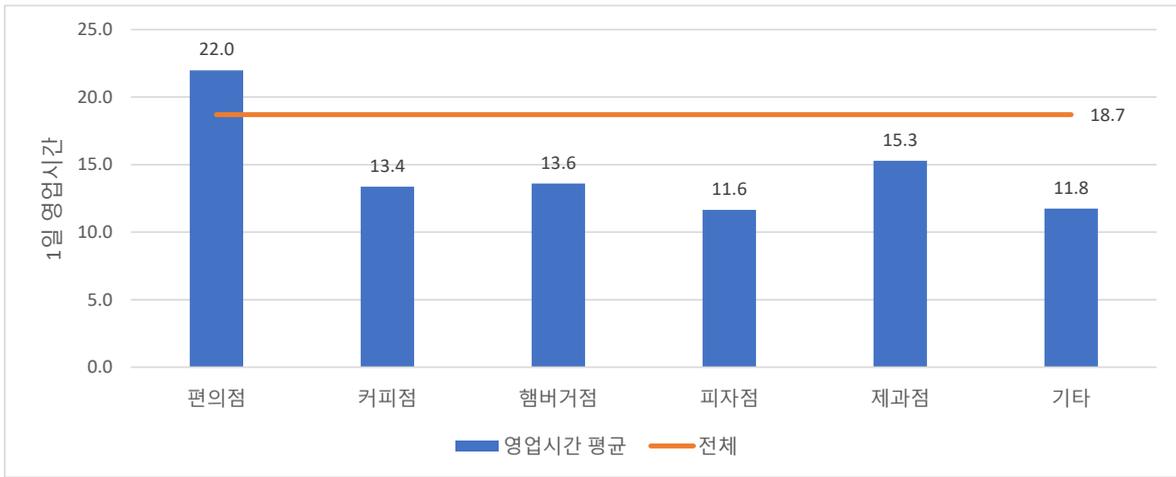
구분	0일	1일	2일	3일	4일	7일	8일	10일
편의점	169 (85.4%)	4 (2.0%)	2 (1.0%)	0 (0.0%)	13 (6.6%)	1 (.5%)	6 (3.0%)	3 (1.5%)
커피점	51 (78.5%)	3 (4.6%)	3 (4.6%)	1 (1.5%)	6 (9.2%)	0 (0.0%)	1 (1.5%)	0 (0.0%)
햄버거점	12 (80.0%)	1 (6.7%)	1 (6.7%)	0 (0.0%)	1 (6.7%)	0 (0.0%)	0 (0.0%)	0 (0.0%)
피자점	10 (55.6%)	1 (5.6%)	4 (22.2%)	0 (0.0%)	3 (16.7%)	0 (0.0%)	0 (0.0%)	0 (0.0%)

제과점	21 (95.5%)	0 (0.0%)	1 (4.5%)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3 (75.0%)	0 (0.0%)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 업태별 하루 영업시간 평균을 보면 편의점이 가장 길며 기타 업태에서 가장 짧다.

- 1일 영업시간 평균을 보면 편의점 > 제과점 > 햄버거점과 커피점 순서로 영업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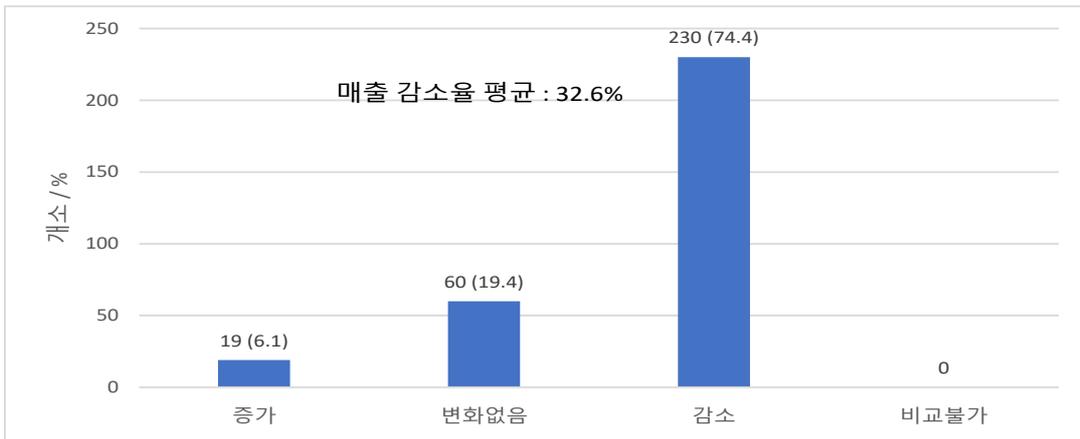
[그림 2-10] 업태별 1일 영업시간 평균



### 3) 매출 현황

○ 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점포 매출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증가했다’가 19개소, ‘감소했다’가 230개소, ‘변화 없음’이 103개소이다. ‘비교 불가’로 응답한 점포는 없다.

[그림 2-11] 1년전 대비 매출 증감 현황



\* 괄호 안 수치는 비율치임.

- 감소했다고 응답한 점포의 매출 감소율 평균은 32.6%이다.
- 세부 변수별로 보면 편의점에서 감소했다는 비율이 33.4%, 커피점은 38.1%이며, 점포 이력에서는 6개월 초과 ~ 2년 이하에서 감소했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 가맹형태에서는 직영점에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편이다.

[표 2-33] 세부 변수별 매출 증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증가	변화없음	감소	
				개소	감소율
업태	편의점	8 (4.3%)	37 (19.7%)	143 (76.1%)	33.4
	커피점	6 (9.7%)	15 (24.2%)	41 (66.1%)	38.1
	햄버거점	3 (20.0%)	3 (20.0%)	9 (60.0%)	23.3
	피자점	1 (5.9%)	2 (11.8%)	14 (82.4%)	35.8
	제과점	1 (4.3%)	2 (8.7%)	20 (87.0%)	22.2
	기타	0 (0.0%)	1 (25.0%)	3 (75.0%)	5.0
소유 형태	자가	0 (0.0%)	4 (16.0%)	21 (84.0%)	27.5
	월세	16 (7.2%)	48 (21.5%)	159 (71.3%)	34.5
	전세	0 (0.0%)	0 (0.0%)	6 (100.0%)	30.0
	보증부월세	2 (6.9%)	2 (6.9%)	25 (86.2%)	25.5
	본사소유	1 (7.7%)	3 (23.1%)	9 (69.2%)	30.6
이력	6개월이하	2 (9.5%)	13 (61.9%)	6 (28.6%)	25.0
	2년이하	3 (4.3%)	14 (20.0%)	53 (75.7%)	35.8
	4년이하	4 (6.0%)	15 (22.4%)	48 (71.6%)	29.4
	4년초과	10 (7.6%)	15 (11.5%)	106 (80.9%)	32.3
규모	5인미만	10 (4.1%)	48 (19.5%)	188 (76.4%)	34.8
	5인이상	9 (14.3%)	12 (19.0%)	42 (66.7%)	20.9
가맹 형태	위탁가맹점	6 (6.7%)	16 (18.0%)	67 (75.3%)	35.1
	순수가맹점	11 (5.7%)	40 (20.6%)	143 (73.7%)	32.1
	직영점	2 (22.2%)	0 (0.0%)	7 (77.8%)	25.0

○ 매출이 감소한 점포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1순위에서는 ‘직원 수 감소 > 직원 근무시간 감소 > 정부 지원책 활용’ 순이었으며, 2순위에서는 ‘직원 근무시간 감소 > 정부 지원책 활용 > 직원 수 감소’ 순서로 나타났다.

- 주로 외부 직원(단시간 노동자) 수와 근무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영업시간 조정, 정부지원책 활용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가맹 계약하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점포 특성상 매출 감소 대응 방식에 제약이 있기에 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감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2-34] 매출 감소 대응

구분	1순위		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매출이익 분배율 조정	14	9.0	2	1.7
본사의 간접비 지원	5	3.2	13	11.3
무인셀프서비스 확대	5	3.2	6	5.2
영업시간 조정	16	10.3	11	9.6
직원 수 감소	59	37.8	15	13.0
직원 근무시간 감소	27	17.3	30	26.1
정부 지원책 활용	22	14.1	29	25.2
제품 가격 인상	2	1.3	3	2.6
기타	6	3.8	6	5.2
전체	156	100.0	115	100.0

- 한편 주관식으로 기입된 ‘기타’ 항목 1순위에서는 ‘대출’, ‘가족 도움’, ‘곧 폐업’, ‘배달 앱 활용’ 등의 대응방법을 언급하였다.
- 프랜차이즈 업체별로 매출 감소 대응 양상을 보면, 햄버거점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직원 수 감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햄버거점은 사례 수는 적지만 매출이익 분배율 조정, 무인, 셀프서비스 확대로 대응한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2-35] 업체별 매출감소 대응(1순위)

(단위 : 개소)

구분	편의점	커피점	햄버거점	피자점	제과점	기타
매출이익 분배율 조정	10 (10.2%)	0 (0.0%)	2 (28.6%)	1 (11.1%)	1 (6.7%)	0 (0.0%)
본사의 간접비 지원	4 (4.1%)	1 (4.0%)	0 (0.0%)	0 (0.0%)	0 (0.0%)	0 (0.0%)
무인셀프서비스 확대	3 (3.1%)	0 (0.0%)	2 (28.6%)	0 (0.0%)	0 (0.0%)	0 (0.0%)
영업시간 조정	8 (8.2%)	6 (24.0%)	1 (14.3%)	0 (0.0%)	1 (6.7%)	0 (0.0%)
직원 수 감소	38 (38.8%)	9 (36.0%)	1 (14.3%)	3 (33.3%)	6 (40.0%)	2 (100.0%)
직원 근무시간 감소	16 (16.3%)	4 (16.0%)	0 (0.0%)	1 (11.1%)	6 (40.0%)	0 (0.0%)
정부 지원책 활용	15 (15.3%)	3 (12.0%)	1 (14.3%)	2 (22.2%)	1 (6.7%)	0 (0.0%)
제품 가격 인상	0 (0.0%)	0 (0.0%)	0 (0.0%)	2 (22.2%)	0 (0.0%)	0 (0.0%)
기타	4 (4.1%)	2 (8.0%)	0 (0.0%)	0 (0.0%)	0 (0.0%)	0 (0.0%)
소계	98 (100.0%)	25 (100.0%)	7 (100.0%)	9 (100.0%)	15 (100.0%)	2 (100.0%)

#### 4) 점포 운영의 어려움과 로열티

- 지난 1년간 점포 운영상의 어려움을 2순위까지 파악한 결과, 1 순위에서는 ‘가맹수수료 부담’ 2순위에서는 ‘동종점포 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 이 첫 번째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체로 가맹수수료 부담과 동종점포로 인한 매출 부진, 구인 및 인력관리, 가족간 유대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표 2-36] 점포 운영상 어려움

구분	1순위		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가맹수수료 부담	139	51.7	10	4.4
동종점포 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	36	13.4	82	36.3
구인 및 인력관리	39	14.5	48	21.2
가맹본부의 마케팅 지원 부족	2	.7	6	2.7
고객응대	5	1.9	14	6.2
가족간 유대시간 부족	15	5.6	49	21.7
계약이행 부담	2	.7	6	2.7
임대료	1	.4	9	4.0
방역정책으로 인한 매출 감소	30	11.2	2	.9
기타	-	-	-	-
전체	269	100.0	226	100.0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업태에서는 편의점은 가맹수수료 부담을, 햄버거점은 인력관리를 가장 주요한 어려움으로 꼽았다.
- 인력관리 어려움은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10%를 넘어서고 있으며, 피자점과 제과점의 경우 20%를 넘어서고 있다. 5인 이상, 직영점에서도 인력관리 어려움 비율이 높은 편이다.
- 동종점포 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은 업태에서는 커피점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10%를 넘고 있으며, 점포 이력이 오래될수록 동종 점포 과다로 인한 어려움 비율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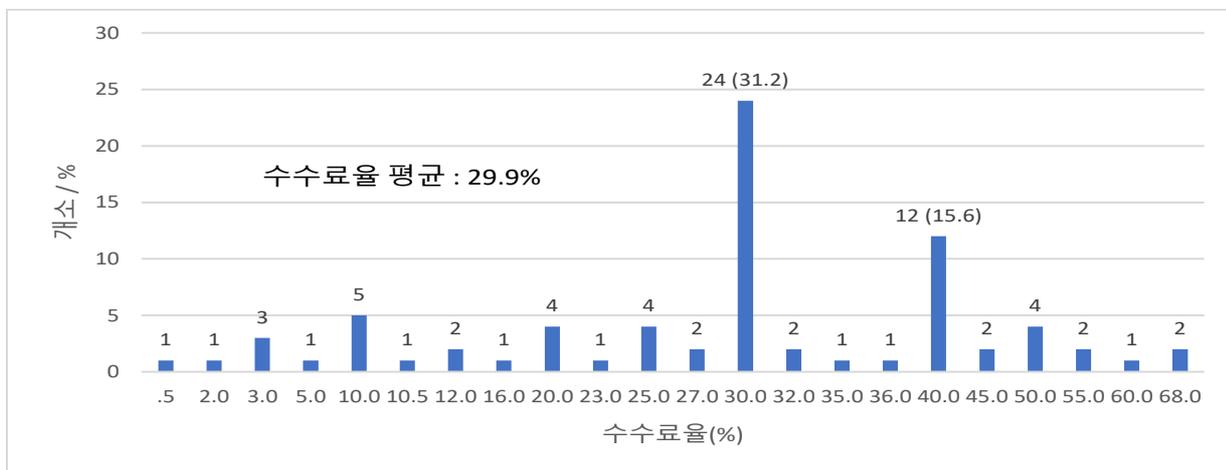
[표 2-37] 세부 변수별 점포 운영상 어려움(1순위)

(단위 : 개소)

구분		가맹수수료 부담	동종점포과다로 인한 매출 부진	인력관리	가맹본부의마케팅지원부족	고객응대	유대시간부족	계약이행부담	임대료	방역정책	기타
사업장소형태	자가	10 (50.0%)	1 (5.0%)	5 (25.0%)	0 (0.0%)	1 (5.0%)	1 (5.0%)	0 (0.0%)	0 (0.0%)	2 (10.0%)	1 (3.4%)
	월세	99 (51.3%)	27 (14.0%)	27 (14.0%)	1 (.5%)	4 (2.1%)	10 (5.2%)	1 (.5%)	1 (.5%)	23 (11.9%)	3 (4.2%)
	전세	3 (60.0%)	1 (20.0%)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보증부월세	17 (60.7%)	4 (14.3%)	2 (7.1%)	0 (0.0%)	0 (0.0%)	1 (3.6%)	0 (0.0%)	0 (0.0%)	4 (14.3%)	5 (2.3%)
	본사소유	4 (30.8%)	2 (15.4%)	2 (15.4%)	1 (7.7%)	0 (0.0%)	2 (15.4%)	1 (7.7%)	0 (0.0%)	1 (7.7%)	1 (2.1%)
업종	편의점	95 (56.9%)	23 (13.8%)	16 (9.6%)	1 (.6%)	5 (3.0%)	11 (6.6%)	1 (.6%)	1 (.6%)	14 (8.4%)	11 (3.0%)
	커피점	25 (48.1%)	5 (9.6%)	9 (17.3%)	0 (0.0%)	0 (0.0%)	3 (5.8%)	0 (0.0%)	0 (0.0%)	10 (19.2%)	0 (0.0%)
	햄버거점	2 (16.7%)	2 (16.7%)	5 (41.7%)	0 (0.0%)	0 (0.0%)	0 (0.0%)	0 (0.0%)	0 (0.0%)	3 (25.0%)	0 (0.0%)
	피자점	8 (57.1%)	2 (14.3%)	3 (2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0 (0.0%)
	제과점	7 (36.8%)	3 (15.8%)	5 (26.3%)	1 (5.3%)	0 (0.0%)	1 (5.3%)	0 (0.0%)	0 (0.0%)	2 (10.5%)	0 (0.0%)
	기타	2 (50.0%)	1 (25.0%)	0 (0.0%)	0 (0.0%)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이력구간	6개월이하	6 (33.3%)	1 (5.6%)	2 (11.1%)	1 (5.6%)	1 (5.6%)	4 (22.2%)	0 (0.0%)	0 (0.0%)	3 (16.7%)	3 (7.3%)
	2년이하	36 (54.5%)	5 (7.6%)	14 (21.2%)	0 (0.0%)	1 (1.5%)	5 (7.6%)	0 (0.0%)	0 (0.0%)	5 (7.6%)	2 (2.2%)
	4년이하	27 (43.5%)	8 (12.9%)	11 (17.7%)	1 (1.6%)	2 (3.2%)	1 (1.6%)	0 (0.0%)	0 (0.0%)	12 (19.4%)	2 (2.7%)
	4년초과	65 (59.6%)	18 (16.5%)	9 (8.3%)	0 (0.0%)	1 (.9%)	5 (4.6%)	2 (1.8%)	1 (.9%)	8 (7.3%)	3 (2.7%)
규모	5인미만	116 (55.5%)	28 (13.4%)	23 (11.0%)	1 (.5%)	4 (1.9%)	11 (5.3%)	1 (.5%)	1 (.5%)	24 (11.5%)	8 (3.6%)
	5인이상	23 (38.3%)	8 (13.3%)	16 (26.7%)	1 (1.7%)	1 (1.7%)	4 (6.7%)	1 (1.7%)	0 (0.0%)	6 (10.0%)	3 (3.2%)
가맹형태	위탁가맹점	53 (65.4%)	12 (14.8%)	5 (6.2%)	0 (0.0%)	2 (2.5%)	6 (7.4%)	0 (0.0%)	0 (0.0%)	3 (3.7%)	3 (2.5%)
	순수가맹점	75 (45.2%)	24 (14.5%)	28 (16.9%)	1 (.6%)	3 (1.8%)	8 (4.8%)	2 (1.2%)	1 (.6%)	24 (14.5%)	7 (3.1%)
	직영점	3 (42.9%)	0 (0.0%)	2 (28.6%)	1 (14.3%)	0 (0.0%)	1 (14.3%)	0 (0.0%)	0 (0.0%)	0 (0.0%)	0 (0.0%)

- 가맹본부(본사)에 로열티를 납부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조사 참여 점포중 172개소(48.7%)가 ‘지불하고 있다’ 고 밝혔으며, 63개소가 ‘지불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118개소는 무응답 하였다.
-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크게 4가지 형태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확보한다. 가맹비, 시설비, 물류 마진, 그리고 로열티 등이다. 물류마진과 더불어 로열티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본사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점포 투자 형태와 매출총 이익 수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sup>2)</sup>.
- 월 수수료 지급 비율을 밝힌 점포는 77개소이다. 매출총이익 대비 30%를 지급한다는 점포가 24개소(31.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40.0%가 12개소(15.6%)였다.
- 평균 수수료율은 29.9%이다.

[그림 2-12] 수수료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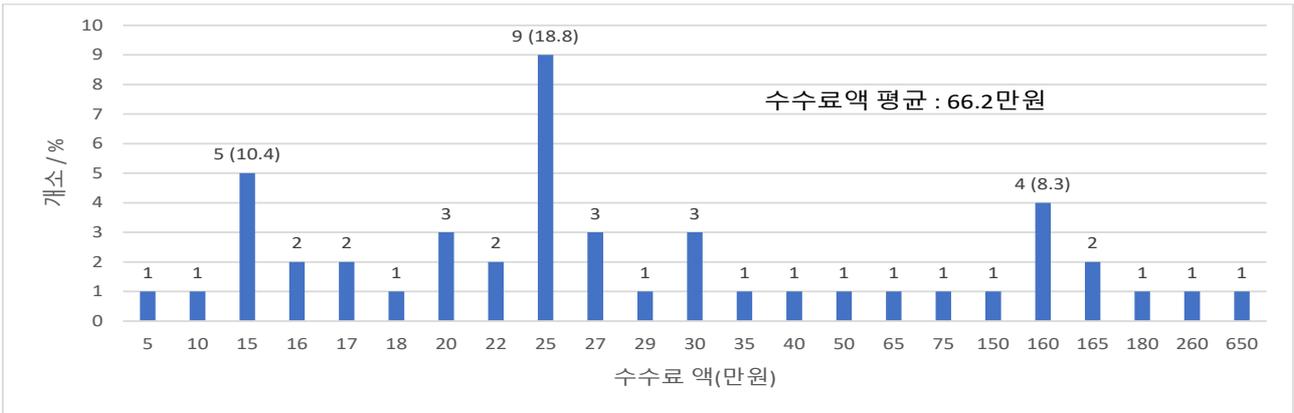


\* 괄호 안 수치는 비율치임.

- 업체별 수수료율 평균을 보면 기타 업태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이 33.5%로 두 번째였다.
- 월 수수료 지급 금액을 밝힌 점포는 48개소이다.
- 금액은 25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5만원, 160만원 순서였다.
- 편의점과 커피점만 수수료액을 밝혔다. 편의점의 수수료액 평균은 146.5만원, 커피점은 22.1만원이다.

2) 월 매출 총이익이 낮으면 수수료율도 낮아지며, 매출총이익이 많을수록 수수료율도 높아지도록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울러 점포 투자 형태, 즉 순수가맹인가 위탁가맹인가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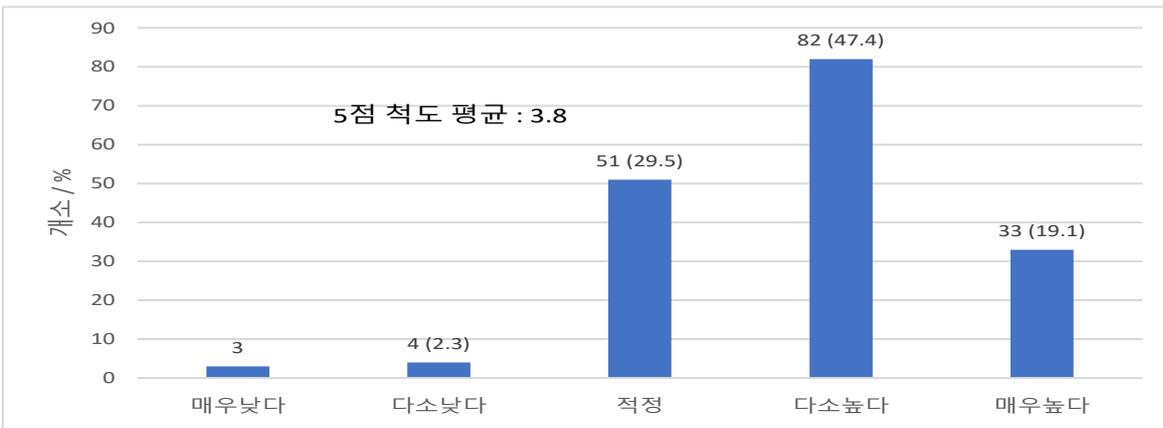
[그림 2-13] 수수료액 현황



\* 괄호 안 수치는 비율치임.

- 수수료 수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를 파악한 결과, ‘높다(매우 높다 포함)’ 는 비율이 66.5%이다.
- 5점 척도 평균 점수로는 3.8점으로 ‘높다’ 에 가깝게 나왔다. 수수료 수준을 밝힌 점포는 173개소 (49.0%)이다.

[그림 2-14] 수수료 수준 인식



\* 괄호 안 수치는 비율치임.

- 2021년 조사에서는 ‘높다(매우 높다 포함)’ 의 비율이 69.3%였으며 5점 척도 점수는 3.9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율치와 5점 척도 점수 모두 약간 하락하였다.
- 업태별로 수수료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면 대체로 편의점에서 수수료 수준이 ‘높다’ 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수는 1개에 불과하지만 햄버거점과 피자점도 5점 척도 평균이 4.0 ~ 4.5에 이르고 있다.

[표 2-38] 업태별 수수료 수준 인식

(단위 : 개소)

구분	매우낮다	다소낮다	적정	다소높다	매우높다	5점 척도 평균
편의점	1 (.8%)	4 (3.4%)	21 (17.6%)	64 (53.8%)	29 (24.4%)	4.0
커피점	1 (2.7%)	0 (0.0%)	24 (64.9%)	12 (32.4%)	0 (0.0%)	3.3
햄버거점	0 (0.0%)	0 (0.0%)	3 (75.0%)	1 (25.0%)	0 (0.0%)	3.3
피자점	0 (0.0%)	0 (0.0%)	0 (0.0%)	4 (80.0%)	1 (20.0%)	4.2
제과점	1 (20.0%)	0 (0.0%)	3 (60.0%)	0 (0.0%)	1 (20.0%)	3.0
기타	0 (0.0%)	0 (0.0%)	0 (0.0%)	1 (50.0%)	1 (50.0%)	4.5
소계	3 (1.7%)	4 (2.3%)	51 (29.7%)	82 (47.7%)	32 (18.6%)	3.8

5) 가맹점 본사 및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

- 가맹점 본사에 대한 요청 사항을 2순위까지 파악한 결과, 1순위에서는 가맹비/로열티 인하가 31.3%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으며, 2순위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13.3%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다.
- 1순위 2, 3번째, 2순위에서 2, 3번째 요청 사항까지 포함해 종합하면 가맹비/로열티인하, 근접출점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최저수익제 도입 등을 주요하게 요청하고 있다.

[표 2-39] 가맹본부에 대한 요청 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노무상담/교육	10	4.2	8	3.7
세무상담/교육	9	3.8	8	3.7
가맹비/로열티인하	75	31.3	28	12.8
최저수익제도입	28	11.7	17	7.8
근접출점제한	18	7.5	20	9.2
인력소개/알선지원	8	3.3	6	2.8
의무휴일제도입	14	5.8	16	7.3
직원휴가시대체근무지원	10	4.2	16	7.3
불공정거래관행개선	10	4.2	9	4.1
카드수수료인하	21	8.8	29	13.3
본사의간접비지원확대	19	7.9	21	9.6
1일영업시간제한	3	1.3	9	4.1
휴폐업시전업지원	9	3.8	8	3.7
건보등사회보험료지원	2	.8	15	6.9
점주협의회간 정례협의제도화	4	1.7	8	3.7
지역화폐확대	-	-	-	-

구분	1순위		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전체	240	100.0	218	100.0

- 업태별로 가맹본부에 대한 1순위 요청사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가맹비/로열티 인하 요구가 높은 가운데 편의점 업태에서 가맹비/로열티 인하 요청이 특히 높다.
- 커피점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비율이, 햄버거점에서는 직원 휴가시 대체 근무 지원이, 제과점에서 인력소개·알선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2-40] 업태별 가맹본부에 대한 요청 사항(1순위) (단위 : 개소)

구분	편의점	커피점	햄버거점	피자점	제과점	기타	소계
노무상담/교육	6 (4.1%)	1 (2.2%)	0 (0.0%)	1 (8.3%)	1 (5.3%)	1 (25.0%)	10 (4.2%)
세무상담/교육	6 (4.1%)	1 (2.2%)	0 (0.0%)	0 (0.0%)	2 (10.5%)	0 (0.0%)	9 (3.8%)
가맹비/로열티인하	57 (38.5%)	11 (23.9%)	0 (0.0%)	3 (25.0%)	2 (10.5%)	1 (25.0%)	74 (31.0%)
최저수익제도입	17 (11.5%)	6 (13.0%)	1 (10.0%)	2 (16.7%)	2 (10.5%)	0 (0.0%)	28 (11.7%)
근접출점제한	15 (10.1%)	1 (2.2%)	1 (10.0%)	0 (0.0%)	1 (5.3%)	0 (0.0%)	18 (7.5%)
인력소개/알선지원	3 (2.0%)	2 (4.3%)	0 (0.0%)	0 (0.0%)	3 (15.8%)	0 (0.0%)	8 (3.3%)
의무휴일제도입	10 (6.8%)	1 (2.2%)	1 (10.0%)	0 (0.0%)	1 (5.3%)	1 (25.0%)	14 (5.9%)
직원휴가시대체근무지원	5 (3.4%)	0 (0.0%)	2 (20.0%)	0 (0.0%)	3 (15.8%)	0 (0.0%)	10 (4.2%)
불공정거래관행개선	5 (3.4%)	2 (4.3%)	1 (10.0%)	0 (0.0%)	1 (5.3%)	1 (25.0%)	10 (4.2%)
카드수수료인하	9 (6.1%)	7 (15.2%)	2 (20.0%)	1 (8.3%)	2 (10.5%)	0 (0.0%)	21 (8.8%)
본사의간접비지원 확대	6 (4.1%)	7 (15.2%)	2 (20.0%)	3 (25.0%)	1 (5.3%)	0 (0.0%)	19 (7.9%)
1일영업시간제한	3 (2.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3%)
휴폐업시전업지원	6 (4.1%)	3 (6.5%)	0 (0.0%)	0 (0.0%)	0 (0.0%)	0 (0.0%)	9 (3.8%)
건보등사회보험료 지원	0 (0.0%)	1 (2.2%)	0 (0.0%)	1 (8.3%)	0 (0.0%)	0 (0.0%)	2 (.8%)
점주협의회간 정례 협의제도화	0 (0.0%)	3 (6.5%)	0 (0.0%)	1 (8.3%)	0 (0.0%)	0 (0.0%)	4 (1.7%)
소계	148 (100.0%)	46 (100.0%)	10 (100.0%)	12 (100.0%)	19 (100.0%)	4 (100.0%)	239 (100.0%)

- 동일 항목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을 파악한 결과, 1순위 첫 번째 요구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근접출점제한 > 사회보험료 지원 순서였다.

- 2순위에서는 건보 등 사회보험료 지원 > 카드 수수료 인하 > 최저수익제 도입 > 휴폐업시 지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2-41] 경기도에 대한 요청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노무상담/교육	13	5.9	6	3.1
세무상담/교육	6	2.7	10	5.2
가맹비/로열티인하	19	8.7	5	2.6
최저수익제도입	12	5.5	17	8.8
근접출점제한	26	11.9	13	6.7
인력소개/알선지원	10	4.6	14	7.3
의무휴일제도입	12	5.5	13	6.7
직원휴가시대체근무지원	4	1.8	8	4.1
불공정거래관행개선	12	5.5	14	7.3
카드수수료인하	53	24.2	23	11.9
본사의간접비지원확대	4	1.8	6	3.1
1일영업시간제한	3	1.4	7	3.6
휴폐업시전업지원	16	7.3	15	7.8
건보등사회보험료지원	24	11.0	36	18.7
점주협의회간 정례협의제도화	5	2.3	6	3.1
지역화폐확대	-	-	-	-
전체	219	100.0	193	100.0

- 1순위와 2순위의 2, 3번째 요구사항까지 포함하면 전반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근접출점제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휴폐업시 전업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 업태별로 경기도에 대한 요청사항(1순위)을 보면 모든 변수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높은 가운데, 편의점에서 근접출점 제한 요구가 높은 편이며, 커피점에서는 인력소개·알선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2-42] 업태별 경기도에 대한 요청사항

구분	편의점	커피점	햄버거점	피자점	제과점	기타	소계
노무상담/교육	10 (7.4%)	2 (4.5%)	0 (0.0%)	0 (0.0%)	1 (6.7%)	0 (0.0%)	13 (6.0%)

구분	편의점	커피점	햄버거점	피자점	제과점	기타	소계
세무상담/교육	4 (3.0%)	1 (2.3%)	0 (0.0%)	1 (9.1%)	0 (0.0%)	0 (0.0%)	6 (2.8%)
가맹비/로열티인하	14 (10.4%)	1 (2.3%)	0 (0.0%)	2 (18.2%)	1 (6.7%)	0 (0.0%)	18 (8.3%)
최저수익제도입	8 (5.9%)	3 (6.8%)	0 (0.0%)	0 (0.0%)	0 (0.0%)	1 (33.3%)	12 (5.5%)
근접출점제한	20 (14.8%)	3 (6.8%)	1 (10.0%)	1 (9.1%)	1 (6.7%)	0 (0.0%)	26 (11.9%)
인력소개/알선지원	2 (1.5%)	6 (13.6%)	0 (0.0%)	0 (0.0%)	2 (13.3%)	0 (0.0%)	10 (4.6%)
의무휴일제도입	8 (5.9%)	1 (2.3%)	1 (10.0%)	1 (9.1%)	1 (6.7%)	0 (0.0%)	12 (5.5%)
직원휴가시대체근무지원	4 (3.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8%)
불공정거래관행개선	6 (4.4%)	1 (2.3%)	1 (10.0%)	1 (9.1%)	1 (6.7%)	2 (66.7%)	12 (5.5%)
카드수수료인하	28 (20.7%)	14 (31.8%)	3 (30.0%)	3 (27.3%)	5 (33.3%)	0 (0.0%)	53 (24.3%)
본사의간접비지원확대	2 (1.5%)	2 (4.5%)	0 (0.0%)	0 (0.0%)	0 (0.0%)	0 (0.0%)	4 (1.8%)
1일영업시간제한	2 (1.5%)	0 (0.0%)	0 (0.0%)	1 (9.1%)	0 (0.0%)	0 (0.0%)	3 (1.4%)
휴폐업사전업지원	10 (7.4%)	4 (9.1%)	1 (10.0%)	1 (9.1%)	0 (0.0%)	0 (0.0%)	16 (7.3%)
건보등사회보험료지원	14 (10.4%)	6 (13.6%)	1 (10.0%)	0 (0.0%)	3 (20.0%)	0 (0.0%)	24 (11.0%)
점주협의회간 정례협의 제도화	3 (2.2%)	0 (0.0%)	2 (20.0%)	0 (0.0%)	0 (0.0%)	0 (0.0%)	5 (2.3%)
소계	135 (100.0%)	44 (100.0%)	10 (100.0%)	11 (100.0%)	15 (100.0%)	3 (100.0%)	218 (100.0%)

○ 전체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비/로열티 인하를, 경기도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되게 요구하고 있다.

### 3장 요약 및 정책 제언

#### 1절 요약

-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실태를 보면 조사 참여자의 8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자중 89.1%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간 시급액 평균은 9,188.9원이며, 야간 시급액은 9,436.2원이다. 주·야간 시급에서 최저임금 미만자는 70명으로 전체 조사 참여 노동자 1,719명 대비 4.1% 수준이다. 2021년 조사에서 최저임금 미만자 수는 77명이었으며 조사 참여 노동자 1,564명 대비 4.9%였다. 2022년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하였다.
  -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 및 교부 방식을 보면 27.4%, 468명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부터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확대는 향후 권익서포터즈 사업에서 핵심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중 주휴 수당을 못받고 있는 노동자 비율은 31.5%, 242명(못받음 + 해당없음)이다. 10명중 3명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미지급된 주휴 수당액 평균은 48,362.5원이다.
  - 주휴 수당 미지급 업체를 보면 주휴수당 미수령자중 204명이 편의점 노동자이다. 편의점이 권익서포터즈 사업에서 핵심 업체인 이유가 주휴수당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 성희롱 및 폭언, 폭력 경험 유무를 보면 성희롱은 36명(2.1%), 폭언, 폭력은 288명(16.8%)이 경험 있다고 밝혔다. 가해 주체는 거의 대부분이 손님이다.
  - 휴게와 관련해서는 44.6%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없으며, 일 4시간 이상 근무자중 431명(26.9%)은 휴게시간에 일을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 프랜차이즈 점주 조사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보면 1순위에서는 가맹비·로열티 인하를, 2순위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가장 많이 요청하였다.
  - 가맹비·로열티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면 ‘높음’ (‘매우 높음’ 포함)의 비율이 66.5%에 이르고 있다.
  - 경기도에 대한 요청 사항을 파악한 결과, 1순위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2순위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첫 번째 요청이었다. 1순위와 2순위의 2, 3번째 요구사항까지 포함하면 전반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근접출점제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휴폐업지 전업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 2절 정책 제언

- 최우선적으로는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의 지속·확대가 필요하다.
  - 집단적 이해대변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외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 이런 점에서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의 지속과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권익서포터즈의 인원을 확충하고, 아울러 대상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나아가 비서비스업 분야의 소규모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 내용 또한 단시간 노동자 대상에서 프랜차이즈 점주, 특히 편의점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편의점 점주는 1인 자영업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법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 가맹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 편의점 개설·계약 갱신시 일정 시간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노동법제 변화를 공지하도록 하며 △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안심사업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예 :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부천시 차원에서 단시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 지역내 노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단시간 노동자가 노동시장내 미조직·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도내 단시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며,
  - 이런 점에서 이미 설립된 지역 노동센터를 중심으로 부천시 미조직·취약노동자의 이해대변 역할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울러 편의점(프랜차이즈) 점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 단시간 노동자의 사용자이지만, 편의점 점주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에서 보면 ‘종속성’이 뚜렷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sup>3)</sup>.
  
- 우선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점주의 고충처리 창구를 개설해 지역내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고충 및 불만을 접수·분류·유형화하고 공개함으로써 가맹본부-점주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프랜차이즈 점주에 대한 기존 실태조사를 보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가맹 본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에 노출되어 있다.

3) 김철식 (2014),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실태 : 편의점을 중심으로’, 박제성의,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 하청노동연구(1)』, 한국노동연구원.

- 아울러 필요시에는 가맹본부·지역본부에 이를 전달하고 부천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 산하 관련 기구에도 문제 제기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활성화 독려 및 부천시·경기도와의 정기적인 협의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집단적인 목소리를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미 2013년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해 잇따른 편의점주 자살 등으로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가 이슈화되면서 점주단체의 협상력 제고 취지로 점주들이 모인 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프랜차이즈별로 가맹점주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아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까지 구성되어 활동 중이기도 하다.
- 대부분의 가맹본사는 자사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형태의 모임을 구성해 운영중으로서 이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소통 및 협의 창구로 활용하고는 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홍보, 또는 소통 창구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가맹본부 차원의 문제 발생시에만 가맹점주들의 목소리(voice)가 활성화되는 양상이 되풀이 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부천시, 나아가 경기도 차원에서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별로 가맹점주별 협의회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견 수렴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 개선 방향·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